夕刊
朝鮮日報
本紙特刊並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奎達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西洋文明의優越權 極東에서粉碎돼

今後十年間은日本의自由

佛『주-날』紙論調

歐羅巴列强의 政治家는無能

【巴里發】 佛國『주-날』紙는二十八日 日中問題에對하야左와如한論說을揭載하야 一般의注目을끌고잇다

歐米諸國은 日中事變에關係치안키때문에 事變은全然平靜케되엿다 現在 駐中日本公使와 中國政府間에 日中問題解決에對한商議가進行되여兩國間에 協定이成立될可能性을 보게되엿다 그리고日本은蘇聯과北鐵에關한 交涉을繼續할뿐더러諸種懸案에關하야 意見을交換하고잇다 蘇聯은 日蘇不可侵條約을 締結하려하고 其代償으로 滿洲國을 承認할모양이다

日中事變에 關한國際聯盟의干涉은 全然無効로도라가고 歐洲列强政治家의 無能은極東에이서 西洋文明의優越性을 粉碎하엿다 日本과中國은歐米를度外視하고 蘇聯은政治的으로歐洲로부터分離하려 極東의事態는이와갓하야 十年間은 日本의 意思대로될것이다 日本의新政策에對하야 往往不滿을抱懷하는者가잇스나 吾人은日本이 其威力을平和와國際協力에發揮할줄로밋는다

福建共軍優勢로 官軍側多數敗退

討伐軍到着으로福州는安全形勢

共產軍主力은南下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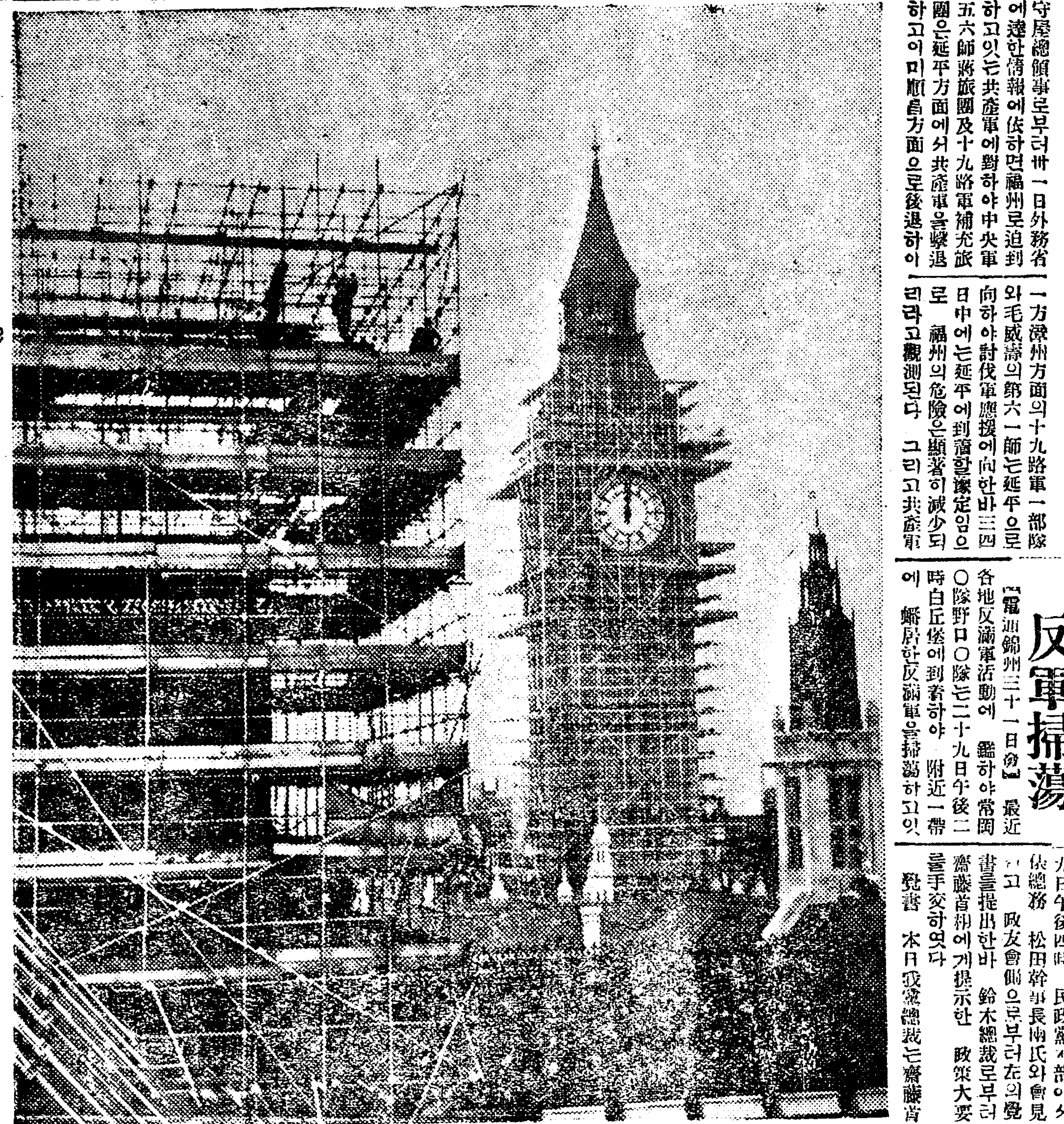
【聯合東京發】 陸軍省에達한情報에依하면福建省內의 共產軍은漸次勢力을增大하야建陽方面赤軍은드되여延平을占領하고福州를窺覦하는同時에 長汀方面으로부터進軍하야其主力軍은十九路軍을擊破하면서 逐次地步를擴充하야드되여連城 淸流永安一帶의地區에서第七十八師第百一師에對하야徹底的打擊을주고 더욱主力軍은漳平으로鋒鋩을轉하야漳州로向하야南下하는形勢로보이고잇다 그리고沙縣方面에잇는一軍은 이미五寨附近에出現하야順昌은一大混亂에陷하엿다 더욱南北武平附近에잇든廣東軍은廣東省內로敗退하고上杭에잇든第四十九師는脅威을바더 鬪岩도包圍狀態에陷하엿슴으로漳州 泉州는防禦池殷을蔡廷楷는漳州에서防禦軍을指揮하야 對戰準備를進行하고잇다一方當地에散在하든共軍은赤軍의戰勝을 다시各處에서猛烈한暴行을이르키고잇다

【電通東京卅一日發】 在福州守屋總領事로부터卅一日外務省에達한情報에依하면福州로迫到하고잇는共產軍에對하야中央軍五六師第旅團及十九路軍補充旅團은延平方面에서共產軍을擊退하고이미順昌方面으로後退하야 一方漳州方面의十九路軍一部隊와毛威壽의第六一師는延平으로向하야討伐軍應援에向한바三四日中에는延平에到着할豫定임으로 福州의危險은顯著히減少되리라고觀測된다 그리고共產軍은全部隊延平으로부터 西北方을 移動하고잇다.

三陛下御默禱

關東震災十週年

【電通東京一日發】 九月一日은 震災記念十週年에該當함으로 東京市를비롯하야各方面에서는 여러가지로儀式을擧行하야 英靈을吊慰하엿는데 天皇 皇后 皇太后三陛下께서는 惶悚하옵게도午前十一時五十八分 親히御默禱하옵시엿스며 또 閑院宮 山階宮 東久邇宮三殿下께서도 故寶子女王紀子女王師正王三殿下의十年祭를行하시엿다



海外寫眞 英國議事堂大修繕工事

議會政治의發祥地인倫敦『테임스』河畔에聳立한英國議事堂이 古色蒼然하여졋슴으로 去七月卅一日부터議事堂內外의大修繕이開始되엿다 寫眞大修繕中의英國議事堂과

米艦隊太平洋滯留 痛痒을不感

海軍當局見解

【聯合東京三十一日發】 米國海軍軍令部長『스탄들레』提督은大西洋艦隊를 太平洋岸에滯留케한다는聲明에 關하야日本海軍當局部에서는 左와如히觀察하고잇다

米艦隊의 太平洋岸滯留는東洋問題가解決될때까지라고하엿스나日本의聯盟脫退後日中問題가一段落을告한今日에도滯留하는것은米國이極東問題가아직解消되지안엇다는認識을抱懷한證據라고思惟된다그리고이問題에關한限『후버』氏와同一한見解를 갓고잇다는것이看破되나 日本海軍은如斯한企圖에는 何等痛痒을感치안코잇다

反軍掃蕩

常岡、野口兩隊

【電通錦州三十一日發】 最近各地反滿軍活動에 鑑하야常岡○隊野口○隊는二十九日午後二時白丘堡에到着하야 附近一帶에 蟠居한反滿軍을掃蕩하고잇는中午後三時迫仙堡에서 反滿軍의集團과遭遇戰을開始하야交戰數時後反滿軍을西敦敗走케하고小銃과彈藥多數를押收하엿나 그리고寅戶○隊의田浦○隊長이指揮하는 討伐隊는二十八日午前六時朝陽을出發하야大房身附近의反滿軍을掃蕩한바 多大効果를收得하고一般住民에對하야宣撫工作을實行하엿다

政友側、民政側에 政策과覺書를手交

山口氏民政本部를訪問하야

【電通東京電話】 政友會의島田總務 山口幹事長兩氏는三十一日午後四時 民政黨本部에서依總務 松田幹事長兩氏와會見하고 政友會側으로부터左의覺書를提出한바 鈴木總裁로부터齋藤首相에게提示한 政策大要를手交하엿다

本日我黨總裁는齋藤首相을訪問하고 我黨의重要政策要綱을提示하고 其實現을要望하엿다 이것은國民多數의意志를反映한것이라고하야 國難打開에 가장効果的大綱이라고確信한다 따라 널리天下에訴하야虛心坦懷其實現을希望하야마지안는다 玆에其內容을御通告하니 詳細檢討하기를希望한다 以上總裁의命令에依하야 貴意를聽取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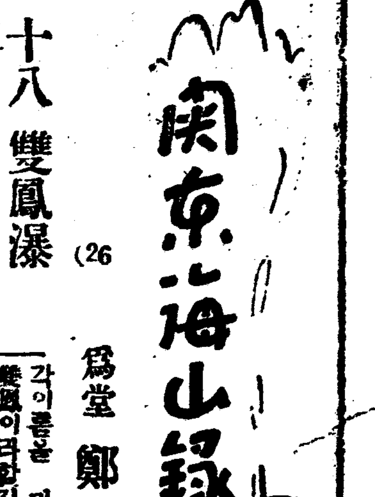
이에對하야 民政黨松田幹事長으로부터人事가잇섯고 卽時同幹事長으로부터 若槻總裁에게 傳하엿다

北鐵交涉延期를 蘇聯側은否認

【電通東京三十一日發】 駐日蘇聯大使『유레네프』氏가三十日重光次官을訪問하고 懇談한데對하야 一部에서는右는北鐵交涉專門委員『쿠즈네초프』氏가着東할때까지 交涉을延期하자는意思를表示한것이라고 傳하나 蘇聯大使館은訪問한眞意는最近日滿軍의 國境을侵入한事實이잇슴으로 此에關하야陳述한것이라고發表하엿다

山海關部隊 避難民을救濟

【電通奉天發】 灤東地區의匪賊猖獗은 旣報한바와갓거니와秦皇島、海陽鎭方面의住民는掠奪暴行이두려워 日本軍駐屯地로避難하고잇다 이미山海關에避難한人數는 二十九日現在가五千名에達하엿고 山海關部隊는 此等避難民에게高粱、麥粉食鹽等을 配給하야救濟에努力하고잇다



(26) 爲堂 鄭寅普

十八 雙鳳瀑

雙鳳瀑은 水簾瀑아래 玉流洞우에잇는 두瀑布를 이름이니 하나는 舞鳳이라하고 하나는 飛鳳이라한다. 舞鳳瀑은 水簾瀑下流이라 溪流가 벼랑에 올만나 그냥 쏘러질것이로되 벼랑이 둥글이오 둥글르도록 측직은것 가든것이 나려오든 물을 엽흐로모라 한번휘어도라나리게하얏다 그밋흔 또臨은沼이오 한편石壁은 돌만으로峻急히나려가고 한편은 石山인대로 樹林이 邃密하다가 각이름을 가젓스되 合辭으로雙鳳이라할진데 舞鳳과 飛鳳이 서로머지아니할는 알수잇는것이오 갓갑다할지라도 하나는 뒤에잇고 하나는앞에잇서 서로보이지아니할것가튼데 또 이러케 얼렁얼렁리가업다 舞鳳瀑의右로 곳 飛鳳瀑이잇스니 前에도 말하얏거니와九龍淵서 玉流洞까지 左右峯巒이 다參天의高峯이며 라는高峯은 參天보다도 揷天의峻勢가잇다

◇ 이峯頂에서 떠러지나리는瀑流가잇다면 누구나 그壯觀한形容을 想像할것이다 그러나그러치아니하야 처음은 심한 이가늘다가 얼마나려와 잘보이지도 안타가 엇지하야 流勢가생기더니 나중은小瀑으로쏘친다 처음은말도말고 얼마나려와도半空이오 流勢생기는데만하야도 百尺內外의高이다 이것이 飛鳳瀑이다 대개 峯頂부터옆분石屛이 겨지겨지내미러約百餘疊이나되는데 半層은기잔은 엇더한曲折이잇섯는지내민이이조곰식들어 밧글向한자치斜勢오 層疊도 一字로되지아니라 錯雜히서로석긔어산것갓자지 언진것처럼되야다 밧글向한斜勢가 도로안으로기울어지나 開闢내민것이밧그로산것도잇다

◇ 그아래는 비스듬한 石臺가또한細疊枚을가진대로 문허진칭계가티 서너번 엇기어나려오더니 그아래는 겨이 平廣한너럭돌로 어슷하게나려오고 또다시 層이지기 約七八丈되나 層하나 서로가튼것은업다 하나가分明하면 하나는희미하고 하나가널부면 하나는좁고 하나가길면 하나는짧다 그아래는 平廣한觸壁인데 좀아래가좁아나려갓다 물이峯頂을넘어오기전은 엇더한曲折이잇섯는지 그는알수업는일이어니와 峯頂을넘어오면 石層을當하는대로 부서지고 부서지는대로 허여지고 허여진것이 또허여져 물살이 부서진것이 또부서지고 또부서지고 다가 빗발이다가 실안개이다가 游絲이다가 졈졈 더가느러 石層의外斜가안으로 휘여 곳下石臺로나리는것은 잇는듯업는듯한 纖纖한白氣라 바람에흩날려 이리저리 솔리면서 石層바산것에 가벼운뒤미리를 만나기도한다

◇ 石臺에나려와서는 도로실안개로 흐터발로 좀사라면서 성긔어 너러들에 다다라는 石面을넘게덮흐니 돌인지 물인지 잘몰수가업다가 解만날때마당 鐵波가일고 밋 餘響에와서는 弱한水勢 그대로부터 흘러 거ᄀ업는것갓더니 봄눅한데 귀욱이 바치어 거긔서비로소 소모여 흐르니 이흐름이야말로 百千番 羽化한天上玉流이다 그 아래와서부터 비로소 小瀑의音響이난다 濚隧이 이룸보고 춤추엇다하며 舞鳳、飛鳳이 다 懶墮이지은이름이라한다(在天常寂悟集、李義肅頤齋集) 舞鳳은 낫고 飛鳳은놉다 그러나飛鳳의 飄揚하는姿態를몰벼 舞鳳의회여도는모양이 또한 따라나는 것갓다

不進地帶에서 反滿抗日을宣傳

日本軍은嚴重監視中

【電通奉天發】 中國軍의不進地帶에는 最近停戰協定에違反하야反滿抗日宣傳을行하고特히永平에는抗日救國軍을組織하야排日을宣傳하는一方强力手段으로 日本人의營業을妨害하는일이續出함으로 日本軍은嚴重監視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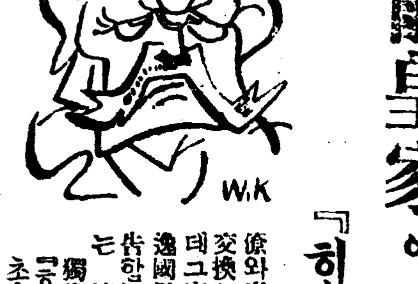
谷口大將勇退

【聯合東京電話】 軍事參議官海軍大將谷口尚眞氏는病으로辭意를가지고大角海相에對하야辭意를表示하든中 九月一日付로드되여 勇退하기로決定하야 左와如히發令되엿다

軍事參議官 海軍大將 正三位勳一等功四級 谷口尚眞 依願豫備役被仰付

獨逸攝政에는 前皇家에서選擇하라

『힌』獨大統領演說



【伯林發】 最近『힌덴부륵』大統領은獨逸政府가 現在直面하고잇는諸問題의解決策에對하야 各閣僚와意見을交換하엿는데그席上獨逸國民에게告한』이라는 演題로 獨逸人은『호-헨초-레른』家의 皇子를『獨逸攝政』으로選擇할것이다 라고 極히注目할만한演說을하엿다 그러나 同大統領은 假使有案이實現된다하더라도 『히틀러』氏는依然宰相의地位에머무를것이다 라고公言하고잇는터인데 即同大統領의心情을아는者는今番演說을當然視하고잇다 그런고로『호-헨초-레른』家에서攝政을 選擇한다면 前皇太子의第一皇子 『윌헬름』親王은 臣下와 結婚하야 이미皇位繼承權을 抛棄하엿슴으로 現在米國『데트로이트』市에잇는 『포-드』自動車工場에勤務中인 第二皇子『루이・퍼-디난드』親王이 가장有力한候補者가 될터이라한다 그런데 이攝政問題가 實現되면 『힌덴부륵』大統領은 『노이데크』所有地에 隱退하게될것이다 (寫眞은) 『힌덴부륵』獨大統領)

西原借款一部 整理開始方針

青木部長이折衝中

【電通東京卅一日發】 西原借款二億餘萬圓은 이미興銀朝銀台銀에對하야 政府로부터公債를交付하야 政府에借替하고對內關係에잇서는 大體로整理가完濟되엿스나 滿洲國確立을機會로하야 其一部를整理할目的으로 大藏省에서는前부터關係各省과協議한結果

一、黑吉兩省林鑛借款三千萬圓의一部를 擔保關係上近日設立할滿洲採金會社에引受케할

一、有線電信借款二千萬圓의一部를 滿洲電信電話會社에引繼케할

等方針을決定하고 目下渡滿中인 青木爲替管理部長은滿洲國及關東軍首腦部와 協議中인데 中國選軍閥과의 關係도잇서서 困難하나 何如든近日解決될모양이다

人事・集會

▲吳兢善氏(世富專門校長)一日朝大時竹添町二丁目五十八番地自宅에서逝外觀 三日午後一時自宅에서永訣式後忘憂里先塋에安葬하리라고

八面鋒

◇農村經濟의濟코자 臨時議會召集說이盛行。本意만은可賞이어 祭祀後豚鳳이 안될는지

◇小作面積、一年間에萬三千町步式增加。農奴의數爻가느는만치、農村의 平和는 줄어간다。

◇시집장가도 돈때문에 못간다! 昨年에는例年보다 五萬四千件이激減。

◇老總角老處女의 한숨에 구식조차 使할날이 업슬모양。

◇두어라、明春三月되면、꼿피고새울적에、人間들도우슬날이잇겟지。

日本의諒解가必要

北中時局處理는

宋氏會見에서黃郛氏力說

【聯合上海三十一日發】 半年에亘한外遊로부터歸國한 宋子文과河北의政權을掌握한黃郛와의 會見은國民政府의今後對日政策에對하야 重大한關係가잇는것이라고하야 자못注目되여잇다 黃郛는 三十日宋子文을訪問하고 河北政局에對하야本格的懇談을遂하엿다 右會見에서黃郛는 먼저關東軍과締結한北支停戰協定及其後協定實施計劃과河北의 日中兩當局間의關係等에對하야 詳細諒解를求하는同時에 今後의北中政局을收拾하는데잇서 中央의財政的援助와 日本政府當局과의諒解가絶對로必要하는것을 力說한데對하야 宋子文은其本意를諒解하고 萬事는蔣介石、汪兆銘과會見하고더욱近日에 開催할中央重要會議에서 決定하겟다고答한 模樣이다 그리고宋子文은三十一日 南京에赴하야 一兩日中에 汪兆銘 系孫科等과同伴하야 廬山에蔣介石을 訪問할豫定이다

『씸라』會商에 門野顧問出席

九月二十二日開會

【電通東京三十一日發】 世界經濟會議休會後倫敦에滯在하야日英綿業會商開催에奔走하고잇는門野顧問에對하야 外務 商工兩大臣 松平駐英大使及大日本紡績聯合會는 過般來日英印『씸라』會商에出席하기를懇請하고잇든바 同氏로부터承諾한다는回答이잇섯다 따라同氏는九月四日 日本紡績代表가倫敦에到着하기를기다려 倫敦會商에關한基礎交涉引繼와諸般協議를遂한後『씸라』로急行하기로되엿다

【聯合東京三十一日發】 『씸라』會商의開會期에對하야三宅總領事가 印度政廳과協議한結果九月二十二日부터 正式으로會議를開催하기로 決定하엿다 따라外務省에서는 直時日本代表에對한 追加訓令作製에着手하엿는데 國際經濟會議의門野顧問으로 印度에急派식혀『씸라』會商의側面的援助를 주게하기로決定하엿다

滿洲電信會社事業

【聯合新京三十一日發】 新設滿洲電信電話會社의第一期五個年計劃事業은 改修工事와事業擴張인데 本年度에完成할大事業은

一、四平街『치치할』、克山、海倫哈爾賓間千百十粁

一、哈爾賓、拉法、吉林、奉天間七百八十四粁

一、新京、吉林、圖們間四百八十粁

等三幹線合計二千三百六十九粁의完成과無線電話民間會社의買收等이다

本報號外發行

本社에서는昨八月三十一日에滿洲國匪賊事件으로號外를發行하얏습니다

피부病退治 데-무水

誇張할三大作用
◉殺菌作用으로 皮膚病의病虫을殺滅하고痛症、痒症、不快症을빨니除去식힘
◉消毒作用으로 患部의病菌을分解消滅하고內攻시키지안코病을消滅케함
◉收斂作用으로 患部를收縮하고健康組織에復活하야治癒를迅速케함
前記의三大特長은데-무水만이가진最大의자랑이외다

●발으옴 ●음부습진 ●무좀 ●옴 ●태독 ●부스럼 ●진무른데 ●가려운데 ●브름 ●헌어루럭이 ●버짐 ●癜風 ●鱗癬 ●濕疹 ●안창 ●여드름 ●죽은깨 ●옷오른데 ●벼룩•모기•빈대等毒虫에게물닌데에는 ▲덧치지도안코 ▲압프지도안코 ▲內攻도업고 ▲눈에도안띄우고 ▲들업지도안코 ▲압플과가려움도업서지고 ▲진물도것처지고 빨니낫습니다

데-무水 藥價 (卅錢、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 送料內地六錢
全國到處의藥房에서販賣함 萬一品切될때에는 代金을添付하야 左記發賣元에注文하시면 卽時送藥하겟습니다
模造品이만흠으로必히 데-무水라고 指名하시고사시옵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一八七四番 電話芝六〇一〇番 振替東京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南一二四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漁具
投網 四分目三十尋 八十圓 五分目三十尋
新式網地 三間幅六尺 三圓
漁具卸商 秋岡商會
京城府本町一丁目派出所前 電話本局四三九〇番 振替京城一二二五六番
都散賣 定價表進呈

醫師試驗
短期間自宅研究醫師開業資格確保 卒業後就職紹介有之特典 要二錢切手
京城府峴底洞四六ノ五八三號 醫學專門講義院

本里消防組創立에朴炳武金潤暉方達春氏가셈부-台를寄附하야주시와 感謝한意를紙上으로謝禮함
振威郡芙蓉面芙蓉里一同

痔疾 脫肛 藥治療專門
京城府鍾路五丁目二七〇番地 東部保健實費醫院 電光二五六八

優美館
八月三十日부터特別大公開! COP超特作大映畫! 原作과-렌호-이트만氏!
幸運襲來 監督 에드와-드그라인氏 主演 죤니하-인스氏 助演 바요텐드마쉬로孃
와-너-브러더-스會社超特作 덤벼든안해 監督 윌니암벧-댄氏 主演 맛도무어-氏 助演 도로시대바-孃
豫告 群集의喚呼、民衆의敵、라이가석크、假面의米國、지獄의지커스 무지개를밟는者

朝鮮劇場
九月一日부터 晝開十二時半 夜間七時 特別普通料金 階上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初秋의第一彈! 傑作名畫封切
乙字파社超特作 豫審 10 巨匠로바-드・죠드・젯드監督 犯罪秘話와判事가自己子息을裁判하지안으면안되엿든가? 事件은謎으로부터謎로드러간다
日本版 獵作으로비스映畫社超名作全篇 O、F、氏의듀랑크 9 新人아레기・시스우라노스키 監督
요새는말할수업는不景氣한때가아닙니까? 不景氣打破의珍話 입지마세요、奇怪한十三個의듀랑크? 乞期待!!
大升超特作 故野口英世博士의 貴重한犧牲을主題로한 女子 10 故鄕의노래 8
人獸大爭鬪映畫 나가나 猛獸島、棄鄕나비、뭄、소낙이、애기난장판、稚育의復讎、戰場아잡잇거라

長崎共產黨員 五十餘名을 一時檢擧

全協系運動者의 赤勞再組織

赤色教授一名은 送局

今日解禁

【長崎電話】 금년이월십일건국제일(建國祭日)을 긔하야 일제히검거하고 이래취조중이든 공산당사건은 구월일일오후금지중에잇든신문긔사게재금지가해제되얏다 장기현특고과(長崎縣特高課)에서는 소화칠년십월경부터 장긔를중심으로한 전협계(全協系)분자의 잠행운동이 활발하고 장긔전레(長崎電軌)종업원등이 적색로조의조직준비중에 잇슴을 탐지하고 경계하야 오든차 소화팔년이월십오일오전다섯시를 긔하야 복강현(福岡縣)특고과와 련락하야 전협『모풀』관계자등을 일제히 검거하기로한후 동일오전한시반경에 오십여명의특고과원을동원식혀 전원치남(田原治男)외사십일명을검거하고 동십팔일밤에는 동시죽구보(竹久保)국아지트를 에잡복한림전(林田)외십수명을체포하야합계 오십팔명을검거하얏다 (이중에너자열넝) 취조한결과 사십팔명을송국하고 책임자격인 복강림전전원의 삼녕은 긔소되야 삼월사일 포상(浦上)형무소에 수용되엇고 또한당시고상(高商) 교수로잇든신천전개(新川傳介)(三九)도 삼월사일 검거되야 목하심리중이다

高商學生을『심파』로 四五種의赤色出版

文化써-클同盟組織

복강은 좌하시고목정(佐賀市高木町)주소장긔시 십이청 (十八町)월백오십팔번지무직(無職)복강순차랑(福岡醇次郎)(三〇)주소장긔시목각정(目覺町)십이번지무직 림전학장(林田學藏)(三二)주소장긔시 중소도정(中小島町)장긔전레(電軌)운전수 전원치랑(田原治男)(三二)의삼명은소화칠년 시월경부터 전협장긔구협의회(全協長崎區協議會)와적색구원회(赤色救援會)지구협의회준비회를 조직하고 시내선대공정(船大工町)목각정(目覺町)동에『아지트』를두고 복강시에잇는전협지방(地方)협의회의지도하에서 동지획득 세력확대에힘쓰며 전협개산연맹(產業別)적색로조(赤色勞組)조직에맹렬히활동하얏고 복강은 칠년십일월과 팔년일월에 복강전협지구회와련락을 취하야 긔관지로쉬전선(全線)강차륜(鋼車輪)등을발행하고 기타 적긔(赤旗)공산당긔관지로신(勞新)(전협긔관지)등 비합법 출판물을 배부하야 다수한 동지를획득하고 일방『모풀』에서는 구원자금을 모집하야 복강으로보내고 전원은 고상(高商)학생을『심파』로 써회득하야 문화(文化)써-클을조직하야『곱푸』(일본푸로문화련맹)의 강령에의하야문학신문(文學新聞)적기、룸펭신문등비합법출판물을배포하야 지도하얏다

新川教授는 資金을調達

이월십일이래맹렬한활동을개시한장긔현특고과는취조의일단락을고하고전원부터공산당『심파』로써주목중이든 당시장긔 고등상업학교(長崎高等商業學校)교수신천전개(新川傳介)(三九)를 검거하야 동월七일 아츰예심(豫審)에 회부하얏는바 신천은 소화오년오월부터 당시까지 동경으로공산당측에 매달마다 조곰식 저공한것이 수백원이라는데 그는그가러 사상을권환하게된 동긔는동경상대(東京商大)재학시 대동대학 교수로잇든 대총금지조(大塚金之助)의지도하에서 여러가지 맑쓰주의 연구회(硏究會)를통하야그가러 적색교수가 되것이라한다

鎭南浦借金王 劉泰杓遂起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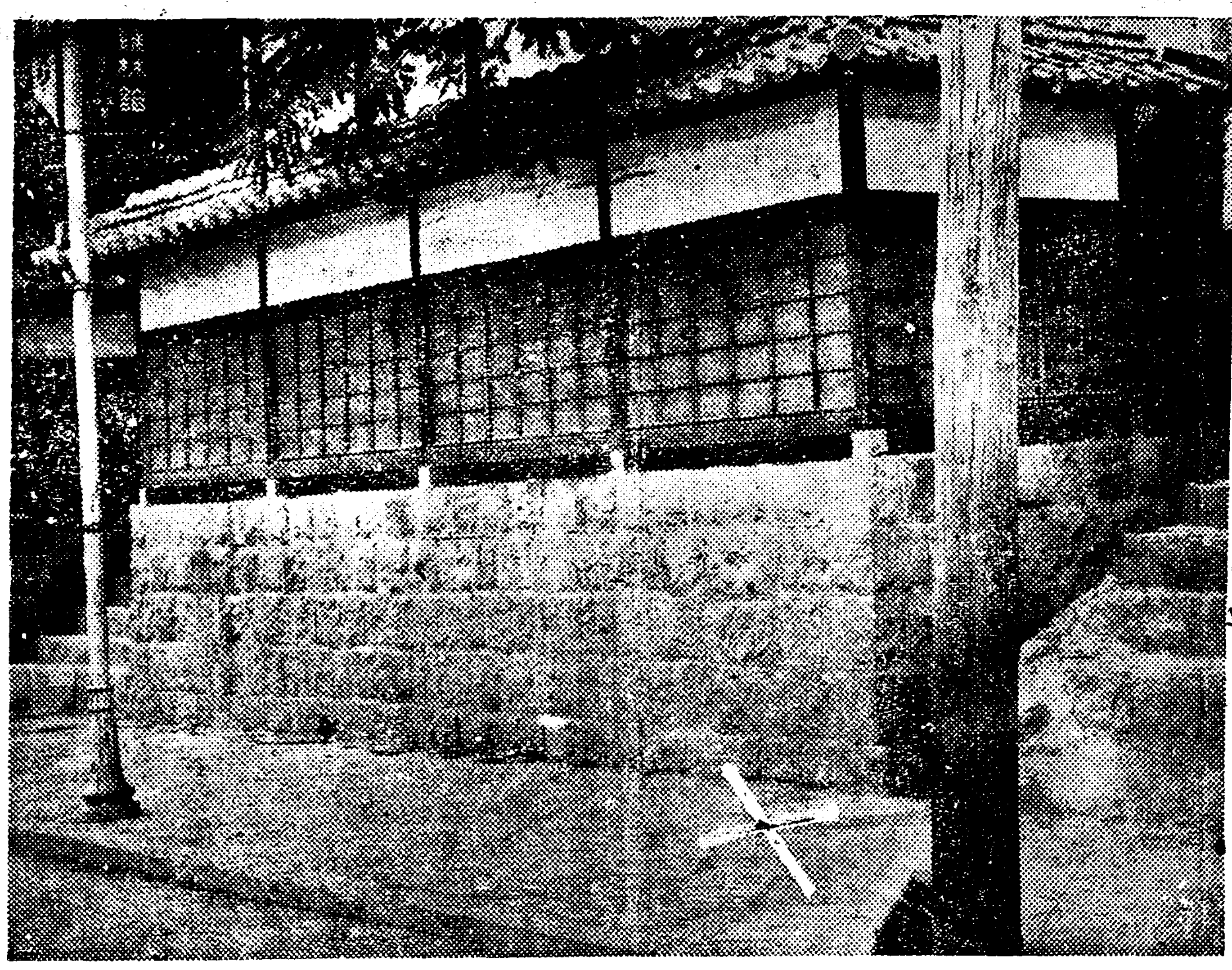
평양지방법원공판에회부

【平壤支局特電】 조선의차금왕(借金王)이라하든진남도평화상회(平和商會)주인류태표(劉泰杓)에대한 사건은 삼십일일 오후세시예심이 결정되야 평양지방법원공판에회부되얏다

土兵大部隊 列車를襲擊

死傷者多數

【奉天】 지난이십칠일오후네시경길해선조양진(吉海線朝陽鎭)을떠나 고산둔(靠山屯)으로진행중인 여객렬차를 토병(土兵)이백여명이 발포습격함으로 일만승경(乘警)은 즉시응전한바 교전한시간반에 토병들은두명의 사자를남기고 퇴각하엿다 이교전에승객중 만주인한명은즉사 승경일명과 승객륙명이부상을 입엇고긔관수 일명은행방불명되엿다고한다



사진은청진부치정계림려관압수사쏘아죽인현장(×표)

反日旅團長指揮로 奉天要所爆破未遂

만주국을 소란시키고자 장학량(張學良)의조종하는 편의대(便衣隊)가 뒤를 이어 만주국에 잠입하야 중요긔관의 폭파를 계획하고 동북민중항일구국군(東北民衆抗日救國軍) 제이십일려총사령(第廿一旅總司令)조전량(趙殿良)의 지휘밑에 금년일월사일에봉천역(奉天驛)삼월이일에 봉천급수탑(給水塔)에 폭탄을 던진사건이생긴 이래 관할 봉천경찰서에서는 긔사게재를 금지하고 극력으로 범인을 수사한결과 다음 여섯명을 체포하야 취조중이엇섯는데 구월삼십일일 오후열한시에 그게재금지를 해제하얏다

被捕者姓名 當時奉天工業四馬路

人力車夫 寇金堂(二八) 同 高景相(三八)

同 賈山玉(三三) 同 李樹祥(三三)

兵器工廠伙事夫 吉傳訓(三九) 同 劉文亮(三六)

奉天驛과變電所

爆破準備現場에서發覺

一黨廿名이連絡活動

동북민중항일 구국군총사령 조전량은 주앙의 면령을바다서소화칠년가을에 만주국에 잠입하야 동복춘(董福春)가라 수뇌부와협의하야 동지규합에 힘써서 그해 십일월에 봉천에서긴 요금당(寇金堂)의 이십명과 교묘히련락을 취하야 기회가닥처오기를 기다리고 잇섯든바십이월 삼십일에 신립둔(新立屯)의 동지로부터 폭탄을 손에너허이것을 일월삼、사량일에 봉천에운반하야『와솔린』통 두통에 너어서 사일저녁에 요금당외네명을 발전소패(發電所組)로삼으며서동일 오후다섯시쯤에 폭탄『피스톨』휘발유등을 가지고서 봉천약송정(若松町)에잇는만주전긔변전소(滿洲變電所)에도착하게 하얏더나 그들은 겁이나서폭파를하지안코 그냥 도라갓다 또일방으로 사일 오후다섯시쯤에고경상(高景相)의 일곱명은 봉천역패(奉天驛組)가 되어 봉천에 향하야 역문안이층에 휘발유를 뿌려서 폭탄에 불을부칠여하든 것을 역원에게 발견되야목적을 달치못하고 이것 역시도망해가 버렷는데 그뒤증여금(贈與金) 상관으로 동지어러 숭강이되어 동지사이는 분렬이되엇다

給水塔을再襲 通行人을射傷

寇金堂等이再次擧事

그러다가 그뒤한동안 소식이막막하든 조종사령은 삼월이일청오홈에 별안간에 남시장(南市場)에잇는 리수상(李樹祥)의집에나타나서 가치잇든요금당(寇金堂)등에게 다시한번일을이르키기를 권유하야 급수탑(給水塔)의폭파를하도록하고 증여금을확실히주기로 언명하얏다 그리하야 일당세명은 그리하겟다고승락하고 그날 오후여섯시오십분에 천대전공원(千代田公園)북편숩속에 잠복하야주위형편을살펴보고 얼마안되어 폭탄한개 휘발유한통을가지고 급수탑수직집(守直家)에도착하야 그승무모(武某)는 수직두청장(杜淸莊)(三五)에게『술을먹이마하고속이고서 그를결박하고정모(丁某)는 그집안에 폭파장치를하고 휘발유를뿌리고서 불을부치고 도주할라는지음에 마츰그때에 그부근을통행하든 송미민남(松尾民男)(三三)을발견하고그에게 한부로피스톨을 쏘아서 약삼주일동안 치료할상을 입히고도주하얏다

一黨廿餘名 一齊被逮

그뒤 봉천경찰서에서는 그범인들을극력 수사하든중 삼월십일일만주측관헌이『피스톨』을가진 수상한자 네명을 그사건의혐의자로 잡아다가취조한결과 봉천역및급수탑폭파사건의 련루자임이 판명되고 그려고또그범행은삼십여명의 련루자로서 한것이 판명하게되엇다는데 일방으로봉천경찰서에서는 팔월새벽여섯시경에 상부지(商埠地)에서요금당(寇金堂)을체포취조하얏는바 옷옷갑주머니에 조충사령의 위임장을 숨겨가지고잇는것을발견하고 또『피스톨』도 가지고잇고 그일당의 소재도판명하얏슴으로 구월오전 한시반에고경상(高景相)가옥산(賈玉山)길전훈(吉傳訓)을 체포하고 이어서봉천 가무송(加茂松)에서 류문량(劉文亮)을검거하얏다 그총사령조전량은 일당이체포되자 북평(北平)으로 도주해버렷다

夜間金庫成績

팔월이십구일부터 삼십일일까지 삼일간개설한 경성부(京城府) 야간금고(夜間金庫)로 수입된금액은이만륙천구백이십구원이십전으로 작년팔월에 비교하면 일백삼십여원의 증가를보이고잇다

清津巡查狙擊犯 端川驛에서畢竟被捉

和服으로變裝하고避身中

格鬪後逮捕된金集弼

청진순사 살해범은 삼십일일에 함경선『단천』에서 체포되얏다 삼십일일 오전십일시 삼십분경 단천역에 일본『유가다』를입은 수상한 청년이나림으로 순사가 검문한바 현금수백원을가지고 잇슴으로 조사한결과 단천포목점에 돈을갑흐려 가다고 하엿스나 거동이 수상하야 조사하엿더니 반항하고 다라나랴함으로 격투한 결과 체포하고 수사한결과 그는김집필(金集弼)로서 그는청진 수사(살해) 범인임을 자백햇다 그는 지난삼사월경에 함흥모처서 피스톨과 현금을 훔치어가지고 팔월이십구일에 청진에나타나 우편국압헤서송순사를맛나 서쏘아죽엿다 그는순사를죽인후 삼십일일오전세시경에 청진모상점에서 수백원의 현금을강탈한 사실도자백햇다 (인눈은사살당한송중산순사) 범인은 범행에사용한 권총을 엇다가 감추어두고 검거될때에는 가지지안엇스며 경무당국에서는 방금 조사중임으로 곳정체가판명될것이다 아즉가터서는 사상의계통이잇지아니하고 단순한강도인듯하다고한다

全朝鮮基督青年 總同盟創立을準備

長老教夏期修養會에서決定

發起委員五人을選擧

지난칠월하순 긔독교 장로회의 이회수양회(修養會)가외금강에열리여 여러가지의 당면문제들도론하든중 전조선 각지방에잇는 긔독청년면려회(基督青年勉勵會)와 밋각종긔독청년단체를합하야 조선긔독청년 총련맹을조직하자는 동의가성립되여 정인과(鄭仁果)리대위(李大偉)리용설(李容卨)씨등 다섯 사람이발기위원으로 선정되여 목하련맹창립에 분주중이라는바 발기위원회에서 구체안을 강구확립한 뒤에는 조선예수교 장노교총회의 결제를바더 시급히련맹창립에로력하리라고한다

德壽宮開放은 十一月一日

秘藏美術品公開

개방하기로결정된 덕수궁(德壽宮)은 작년칠월부터 리왕직에서 수리중이든바 구월말일까지는 완성을보게될듯함으로 십월일일부터 개방할모양이라고한다 궁내는석조전을 중심으로한건물에 리왕가비장인 보물을 진렬하야박물관으로하고 약일만오천평의 뜰

『스포-스』異聞 外語쓰면嚴罰

운동대회에외국어금지

排外方酣한中國

【南京】 외국배척열、국수주의주창열이 팽창한 중국에서그영향이 운동경기에까지 밋치게되어 금년남경서 열리는전중국운동대회 경기장에서 외국어를사용하는자는 엄중한 처벌을한다는것을 동대회 준비회에서결의하엿다 재래에중국의유게、특히운동방면에 잇서서는 모든술어를 영어로쓰는습관이 만히잇서왓는데 이것이『민족자진련』을 타락케한다하야 금지하게되는것이다 운동선수는 물론、직원、심판원 까지도 절대로중국어 이외에는 쓰지말라고하는것이다

滿洲事變紀念

오는십팔일은 만주사변이주년 긔념일임으로이날을긔하야경성부(京城府)외륙개단체의주최로 위령제(慰靈祭)강연회(講演會)영화회(映畵會)등을 개최한다고한다

谷城에市內電話

전라남도곡성(全南谷城)은군청소재지로 나날이 발전되고잇슴으로 체신국(遞信局)에서는 당지우편소에 시내전화 교환사무를시작하게되야 목월부터가입신청을 수리하기로 되엿다

東大籠球團招聘中止

그理由와眞狀

◇朝鮮籠球協會發表◇

東京帝大籠球團의 來訪은 累次報道한바와 갓거니와 朝鮮籠球協會의主管으로 日本籠球界覇者東大軍을 마저 延專과 普專兩雄이 여름동안練習을거듭하야 鍛鍊된팜무 예快試合의 機會를주고저하엿든바 아래와갓흔 眞狀과經緯로서招聘中止라는 最後決定을 짓게되엇다 비단籠球界만이 아니라 各種運動競技가 統制機關이라는것이 생기여 日後도 이러한일이續出될것이 豫測되는同時에 今後우리運動團體의 猛省이잇슴을 必要로하는바 各自現役選手들로서도 單純한運動競技兩團외에 別다른意味의注意를 提唱하고잇다 朝鮮籠球協會의發表한聲明書를 紹介하면다음과갓다

朝鮮籠球協會聲明書

籠協會에서는 東大軍招聘에對하야 去六月末頃부터間接直接으로交涉을거듭하야 具體的으로來征日字 競技回數 保證金外지作定케되는同時 東大側으로서는 正式으로新聞에까지發表하엿섯다 그러는一方本協會에서는招聘할 日本籠球協會加盟員인同時이곳에도 그의支部가잇슴으로 그를招聘함에는그들團體에規約을 尊重히하야미리諒解를求하야둠이 事務進行上圓滿하다고보아 東大軍을交涉할때부터 이곳支部에諒解를本協會重要幹部로부터 口頭又는正式書面으로 五六次以上諒解를求하얏든바支部에서는 絕對無誠心을가지고 此日彼日하야一個月以上을 遲延식혀오다가去八月一日附公文으로 正式回答을보내엿는데 그의要旨는

一• 東大軍招聘競技에잇서絕對로自己支部主管監督下에하라는것

二• 압흐로는自己協會加盟團體以外의團體에서는對內對外的으로外來軍을招聘치못한다는것

이외에 이러한條件下에承諾을한다면 支部長의게誓約書를쓰라는것과 又는附帶條件으로

1•그의經過를…一히報告할것

2 宣傳•廣告文•又는新聞記事에까지 그의書類에日本籠球協會支部主管이라는名義를부처라는것等이다

이러한 侮辱的公文을밧은本協會에서는 八月二日에 緊急理事會를열고 自己團體보다近二年이나압서 組織된旣存團體이며 또한嚴然히서잇는 獨立團體로서 그와가튼無理한干涉下에는招聘할수업다고 決定하는同時압흐로는 그와갓흔團體와는妥協的으로나갈수업다는것을議決하야 그의뜻으로即時支部側에通告한同時 八月三日東大側에招聘不可能에電報를치고이러서 그곳協會關係者와 東大側에게 支部의關係와우리의態度를說明하엿든것이다 그리하야 이問題는이것으로 一段落을지엇든것이다

그後二週日을 經過하야八月十八日에 갑작이東大로부터『貴協會의正式交涉이잇서 우리는이에承諾을하엿고또는 이곳本部側에諒解도엇은以上支部關係를不關하고 遠征을決行하야도될수잇겟느냐는 書信이왓슴으로協會로서는 다시理事會를열어招聘키로一致可決하야招聘의正式公文을보내는一方準備에奔忙하엿든것이다 그리하자去二十五、六日에 東大로부터電報와又는 公文으로今番에는協會本部의不諒解로 遠征不可能케되는同時合宿練習까지 中止케되엿다는뜻으로 通知가왓다그리하야東大招聘件은 이것으로終局을지엇다 今番 이問題에잇서 東大가온다아니온다하야一般이疑心中에잇겟슴으로 本協會로서는 그의經過와眞狀을確實히發表하는바이다

日本興文中學籠球團 京城서對抗戰

日本與市興文中學에 留學하는同胞選手로만組織된 籠球團은 일즉히 日本中等籠球界의覇權을 獲得한强軍으로 今般夏期休暇에歸鄉할을機會삼아 選手一同이數日前부터 京城에會集하야 코-취李憲逢氏指導下에 徽文球場에서 猛練習을거듭하고잇다 同軍은이미日本에는敵할바업슴을보닷고 朝鮮一流中學團과對抗戰을行할豫定으로交涉中에 잇다 一行의멤버-는아래와갓다 ▲部長宮川女史▲코-취李憲逢 ▲主將田瑛秀 ▲選手崔善鳳 朴義根 郭昌烈 李鳳洙 申鳳浩 太斗憲 田炳演 具成鉉 韓甲鎭 崔鳳瑞 柳海鵬 崔應煥

佐波醫學博士秘法 묘진短期療法公開

神經衰弱

無料로 五年間의書籍을快勝한 나의實地經驗을알님니다

여러가지藥을服用햇스나낫지아니는분 良藥과조흔療法을고저하는분

東京市小石川區東青柳町三三 敬神福德會 健康相談部主任

開業廣告

江津邑本町 洪載醫院 入院隨意 電話七〇番

登錄商標 천국거 고무신 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話光一一五九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光化門七六〇番 振替口座京城二一〇五番

株式會社 漢城銀行

支店及出張所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驪州、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延安、平壤、平壤大和町)

昭和八年四月一日現在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職員錄

定價金八拾錢 荷造送料二十五錢 發賣所 京城府長谷川町 近澤出版部 電話本局九八番

肺病專門滿州療養院

本院滿五週年紀念式 母院廿五週年紀念式 本院禮拜堂落成式 時日九月二十三日(土)午前十時 場所本院禮拜堂 療養指針書一冊呈 要三錢切手一本 院案內書要二錢切手 院長賀樂 電話二七五•三二番 京振一七〇六九番

貸家 茶屋町九十八(茶房隣家)瓦家八十一間、保證金五百圓 一、保證人二人을必要 月稅金壹百參拾圓 府內長谷川町七四 近澤 本局九八番

中西テント 京城驛前 中西テント 電話本局二八四〇番 振替京城一二〇六六番

第一劇場

九月一日낫부터上映 特選映畵大公開 每日二回 밤八時 낫一時十五分 始映 料金 大衆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매도로社超特作品 名畵부로-도우에-의춤추는女子 오리-보-렌-鑛 主演

新興푸로덕순作品 朝鮮映畵 바다의아리랑 全六卷 李慶善 金鮮英 主演 時代는李朝末期只今으로七十餘年前산골물말근鄕村에서淳朴한農夫의鉄한웃엄는憧憬과愛着에서비저낸것이다

마기노社作品 金森萬象 監督 超特作品 猛襲飛躍 矢衾(야부스마) 全十二卷 마에노正博 主演 時은鎌倉奇傑矢衾在近立介殿昭和의一에피소-도、사랑이잇고鮮血飛去의大猛闘劇、興味痛快無比의大衆的大映畵보고드르시라

中央館

廿九日特別公開 初秋新界に又も捧げる涙の映畵 詩必ずや全京城婦女子の心底に心めく迄涙の渦ころでしよう! 全勝主の新興映畵の傑作編を見よ! 新興キネマ初夏超弩級 代悲劇原作山內英三•監督渡邊新太郎撮影二宮義曉主演森靜子

仇なさけ

助演吉原寺光•泉清子•若菜馨•小役北岡勵 涙の乙女靜さやんを ヒロインに浮草の流浪をつづけ る、やるせなさ!花しさ!儚けのか運命に泣く乙女、清純な戀を ちかこ抱きしめて、哀憐愁悲 くさ靜子の描く悲戀情緒詩一篇 主題歌あだをさけ 獨唱 スヒクターレコード吹込 者はて、なつかしたこて、すぎ行 たこけあまつい蝶が花を好いく 新興キネマ初夏超弩級 嵐寬壽郞プロ 津三原作品 監督白井戰 誌講談俱樂部連載 快作品 佐佐木味津三原作 嵐寬壽郞 獨特大熱演 第一回作品 比無適役

隱密三代男

クオーナープラッシス映畵 病風武者 主演ケネス•ハーラン氏 パッシー•ルス嬢

窮民의 큰苦痛인 强制的色衣奬勵

窮農期의 生活을理解못한다고

龜城郡下農民大不平

【新市】 귀성군(龜城郡)에서는 군군을 통하야 대대적으로 색의를장려하는대 일반인민은 그장려방식이 너무도 강제적이라는바 그내용은 군에서 각면에면리원에 인식선발하야 염색의 방법을 교습케한후 각면에 통첩하야 매호에 십오전식의 염료대금을 징수하는대 그대금이 전군을통하야 일천륙백원에 달하며 염료는 꼭동구입으로 면에서직접 면민을소집하야 면민의의복에염색하야준다는대 빈민측의 농민들은 현하궁농기에 그대금지불이 곤난할뿐더러 염색할 의복도업서 큰걱정인 동시에 군당국의 빈농의 생활상태를 도모지 리해치 못한다는 불평이 만타고한다

總工費二百餘圓 化川夜學新築

【馬山】 경남칠북(漆北)에잇는 화천야학(化川夜學)은 과거십여년동안의 긴력사를 가지고 농촌무산아동교육에 만흔 로력을 해오든바 현재아동수가 사십여명으로 늘고 교사의협착을 늣겨오든터에 이번이 부락에 설치되야잇는 근농조합부인성미조합(勤農組合婦人誠米組合)을중심하야 부근유지의활동으로 이백여원의 신축기금을 어덧든바 이로서 긔본으로하야 지난삼십일일 교사 신축을긔공하엿다한다

豫想튼豐作도 只今은一場春夢

청초는무성하엿스나 결실긔에천긔가부조

平北龜城一帶凶作難免

【新市】 평북귀성군 일대(平北龜城郡一帶)에는 긔경시(耘耕時)부터 제초긔(除草期)에 이르기까지 청초는 수십년이래에처음볼만큼 무성하여 일반농민들은 깁버하엿스나 근일에이르러서는 넘우한발이 심하더니 삼복건부터 비가오기시작하여 마치 여름장마날과갓해서 일반주민들과 농민들은 예상하든바와는 아조반대의 결과를 낫케되엿슴으로 그들의우려는 말할바가아니지만 일반주민들까지 아마의주름쌀을 펴지못하고잇다고한다

馬山應急復舊費 遂四萬圓承認

救窮土木工事實施

【馬山】 마산부 수해지 토목관계복구공사비 십팔만원으로 국고비 훙은 도지방비보조요구를 신청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에대한 총독부및경남도당국의 승인문제는 여하히귀개될는지 아즉알지못하나 우선경남도당국으로부터 구궁사업(救窮事業)으로서 토목공사에 응급복구비로서 사만삼천여원은 승인되리라 관측된다고한다

開港紀念으로 仁川物產品評

十月七日부터五日間

【仁川】 오는십월팔일부터 인천개항오십주년이 되는 ... 니와 인천부와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긔렴사업으로 시월칠일부터 오일간을두고 사정(寺町)소학교강당에서 인천물산품평회를 개최하기로되엿는데 인천의경제발전과 산업의진흥을 도모하기위하야 시내는물론 인천부에접근된 시외까지의 생산품을 망라하야 채장보단(採長補短)의편의를주며 심사비평을한다는바 출품지원자는 구월이십이일까지 동회에신청하기를바란다한다

暴行口實로 威脅

되잡힌음식점주 검사국에

【羅津】 경흥군풍해면무창동(慶興郡豐海面武昌洞)에원적을두고 당지신안동(新安洞)이십이번지에서 일광식당(日光食堂)을경영하고잇는 강태원(姜太元)(三三)은 자기의첩(妾)을강간(强姦)하엿다는구실로 시내모약방주(某藥房主) 조삼성(趙三成)(假名)씨를협박하여 돈을먹으랴다가 발각되여 당지경찰에서취조를밧고 십오일에 웅긔서(雄基署)로압송되엿다가 이십이일에검사국(檢事局)으로송치되엿는데 사건의경위를 드른즉 월삼십일밤에 조씨는친구한사람과함께 일광식당에가서 전부터 친밀한관계가잇는 강태원의첩 현수득(玄水得)(三六)과 한자리에안자서 술을 먹다가 조씨는 취하여서 눕고 그친구는 조금 잇다가 돌아갓는데 조씨는새벽에 일어나서 현수득의방에 들어갓다가 그알에방에서 자든강태원에게들키엇스나 별일업시 돌아오게되엿든바 그잇흔날 어쐬된셈인지 현수득이가 조씨의집에와서 집이비여잇는데 들어가 기구를산산히 파쇄하엿고 팔월륙일밤에는 현수득의 옵바라고하는 부산부평정(釜山富平町)에 본적을두고 당지산본조공사장(山本組工事場)에서 밥장사하는 김재근(金在根)을 보내여서 조씨를 다려다가 뒤방에 몰아넛코 세사람이 달려들어 따리고는 현수득이 임신중강간하려고하기때문에 놀라서 류산(流產)되엿다고 치료비로 삼백원 영업의손해로 이백원 합계오백원을요구함으로 조씨는 위급한현장을 모면하기위하여 그를승락하는 증서를써주고 노혀와서는 그잇흔날경찰에 고소한것이라는데 경찰에서는 그들을 인치취조한결과 공모한것이 판명되엿다하며 김재근은 일이성공되면 돈백원을 주겟다고함으로 거짓옵바노릇을 하엿다고 자백하고는 도망하여버렷다는데 강태원측에서는 조씨를 강간미수죄(强姦未遂罪)로 고소하여 이곳에서는 금이야기거리가되여잇다

咸安小浪江治水 工事促進을陳情

부근주민이도、군당국에

【馬山】 경남함안군칠북칠서(漆北漆西)량면을 관통하고 잇는 소랑강(小浪江)은 락동강의 지류로서 아즉도 치수공사가되야잇지안해 조곰만 락동강수가 증수되면 곳이소랑강으로 밀고드러오게되야 량면안의 경지일천삼백여정보를 공연히 황무지로만들게됨으로 이에 이번의대홍수의 피습을 긔회로서 완전한 치수공사를 베풀기위하야 칠북면장황현수(黃灐壽) 칠서면장심상협(沈相協)량씨를중심으로 부근주민이 일제히 일어나 이를 당국급군당국에 진정코저 모든 준비를진행하고잇다고한다

水道工費割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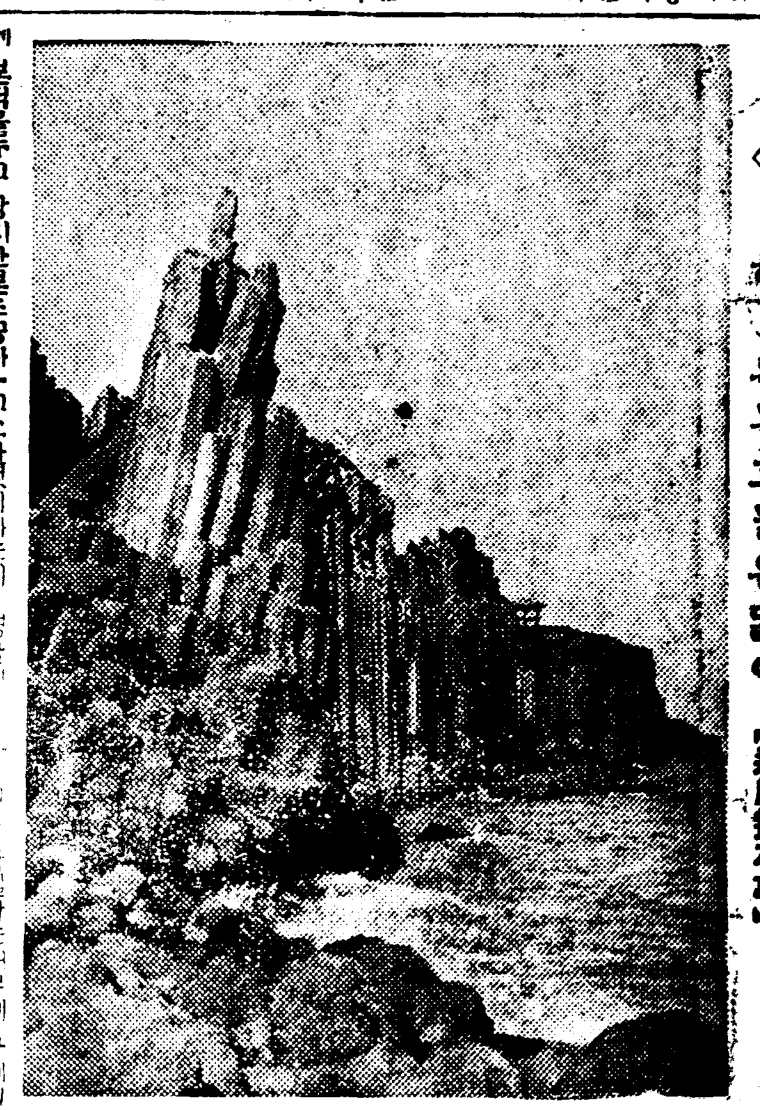
大邱에서

【大邱】 대구부수도게에서는 구월일일부터 두달동안 다음과갓치 공비할인을하는동시에 개인종요원으로 약삼백호에게 수도설치를권유하리라 한다

一、二割引

一、拂込에適한

一、本管이멀면三月以上申込에限하야特別로割引함



◇……하늘은높고 물은맑어【通川叢石亭】

制服의假醫專生 妓生을欺瞞弄絡

이개월간이나속여오며 호유타가본색탈로되어

畢竟詐欺罪로被捉

【平壤】 긔생을울니는가의학생(假醫學生)이 평양서에 체포되엿다 대동군시족면(大同郡柴足面)출생으로 부내경제리(鏡齊里)사십번지에거주하는 모의학강습소(某醫講習所)학생 허승환(許承煥)(二四)은 금년오월 대동강에서 동리긔생정소담(鄭素淡)(二六)과『보-트』를갓치 타게된것이 인연이되여 평양의학전문학교의제복제모로 동녀의집에출입하면서 달콤한 니야기로 자긔집에서 학비가 멧백원식드러오는데 그때부터는 따로살림을하자고 속여가면서 이개월간이나 긔생이벌어오는돈으로 질탕호유를 계속하다가 급기야 본색이탄로되여 긔생을울니고야말엇스며 허승환은 사긔범으로 체포되엿다고한다

男便돈일흔데 嫌疑밧고自殺企圖

曖昧한指目에憤慨하야

【龍仁】 룡인군수여면운학리(龍仁郡水餘面雲鶴里) 안정용(安鼎鏞)의첩 권순옥(權順玉)은 이십팔일오후일시경에 독약을먹고 자살하랴다가 발각되여 목하룡인읍권(權)공의의치료를밧고잇다는바 생명이위독하다한다 그내용은 지난이십오일오후팔시경에 권긔안정용이가 자긔첩과가티 소(牛)판돈일백오원을세여 지갑에 너흘때에 그엽헤잇든 김삼재(金三才)(三三)란사람도 보앗다 그날밤을 지난 그익일인 이십륙일아침에 다시꺼내여 본즉 한푼도업시 감쪽가치 업서젓슴으로 안정용은 매경하야 자긔첩에게 사실을 물엇스나 과연그도모른다 함으로 할일업시 이십팔일에 룡인서에 고발한바 되여 즉시 김도천(金稻泉)량형사가 출장하야 인치하야 취조한결과 사실을 자백하고 집울타리미테 두엇스니 가티 가자고 형사를 다리고 자긔집에가서 소변본다 핑계하고 갓다오더니 애매한혐의라 하야 그와가티 음독하엿다 하며 권긔 김삼재만을 목하인치 취조중이라는데 과연범죄의 주인공은누구인지 매우주목중이라고 한다

鄭夫人의美擧

【固城】 원적을 진주읍내(晉州邑內)에 두고 고성군영현면(固城郡永縣面)등지에 토지를둔 김재계(金在桂)씨의모친 정부인(鄭婦人)은 요즈음 자긔의 작년추수곡방매차로 영현면(永縣面)에 와서 현하농촌농민의 참상을보고 영부리(永芙里)부락사십오호에게 조두석닷말을 내여 위선로인과 어린아히들의 굶주리고 잇는 궁민에게 배급하엿다는데 이를드른 일반인사는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주렵만흔… 平南稻作憂慮

水難이지나자또虫難

【平壤】 말수긔에우천계속으로 일시비관시하든 평남의도작(稻作)은 일긔쾌청으로 인하여 다시 수운은 일소되엿스나 최근 평남각지에 멧둑이의 번식이가장창궐하여 수도(水稻)를 해치고잇서 또다시 농촌에서는 눈살을찝흐리고 멧둑이구제에 로력

모양이다 예년에는 수도의이삭귀를먹고 최근에는 이삭을먹는터임으로 발수긔를 당하치근국히우려되는터이라한다

故一星先生 隨葬記 (三)

李源朝

先生! 이朱乙溫泉은 先生이 마지막으로 그遺兒들에게 편지를 보내신곳이다 海寅이에게와 海淑이(내妻弟로서인제八歲에나는슴愛이다)에게 溫泉湯繪葉書를보내고 『海寅아 네가 溫泉이무엇인지를아느냐? 『매비』(이애들이나를불을때 『매부놈』말을『매비』라고부르는 째문이다)더무러보아라 아버지는 잘단인다 얼른가서 너하고 산보하고십다』하시엿더니 이얼른가고십흔마음이 엇지 永遠이 도라오지못하시며 너하고산보하고십흐신마음이 엇지 주검으로夜臺를것나잇가?

朱乙ゝ부터 淸津싸지 마중나오신吊客이 하나식둘식느러가면서 暗澹한暮色에 白頭山光이 갈사록빗치업더라 淸津에 다으니 李昌仁氏을 비롯해서 數十餘人의 人士가 驛頭에나와 마지며 모다 눈물을

과한숨으로 人사를하니 姓名과面目은 다記憶할수업스니 護喪所인 李昌仁氏宅에 이르니 數百餘人의 老幼親疎가 업시 눈물속에도 百般의準備에 밧부신中 웃는얼굴로 떠나가신先生을 눈감으신채로 對하니 이어인변인고 아모리 號哀痛哭을해도 한마듸 대답업스니 자는듯한 그얼굴에엇지써 왜실슴은 모른단말이냐? 嗚呼라 先生이진실로가 엇도다 人世의無常함이 엇지 이러하며 나의無福함이 또한 이러하리오? 泰山北斗와 가티 依仰하든 先生을 이제 내손으로 斂襲의목고를 거-으니 嗚呼先生이여! 萬事休矣 옷라 내몸음이 엇지면 先生의가시는 발자최를 도라서게하며 내눈물이 얼마나하하면先生의 가시는 길을막으릿가? 寸腸이 摧折하는듯한 公私로의痛惜이 어느하나으로 先生의英靈을慰勞할바가업스며 느하나으로내自身을慰安할바도 업습니다 밧그로 世界의風雲이尋常치안으니 우리의운곳이어되며 안으로 세개의孤兒가잇스니 그長成해 先生의遺業을繼承할期約이또한언제오릿가?

是日夜에 先生에게 最初이고 最後인 젊은同志들의 徹夜하는守護밋헤서 斂襲을맛치고 그翌朝에 先生의最後의足跡이깃친 淸津의人士들이 手執紼해 喪所를떠나나오니 日光을덥흔輓旗吊旗는 悲風에 번득이면서 압헤서고 淸津友樂團의 哀切悽惋한哀樂은 靈轝를引導하니 滿城冠蓋가 모다모혀와 佛經을잡고눈물을흘니지안는이가업더라 淸津驛前廣場에서 永訣式을 擧行하니 會衆이 數百餘人이라 모다 飮泣하는가운데 靈柩는 午前九時二十五分車로떠나니 어제에 先生이 밟고오신이땅을 結棺한채로도라서는것을 虛無한運命이라하기에도 넘우나 虛無하거늘 來吊하는이나 受吊하는이가 다함께 엇지 무슨말이잇스리오? 다만 서로 눈물로보내고 눈물로써 날뿐이니 눈물그것도오히려 포시리운表情이라면 先主의 悄悵悶懈 數百의同志가에워싸는가운데 석겨섯는내存在가 아모리해도 옷독하고외로운悲哀야 낸들무엇으로엇더케抑制할것이며 또한엇더케表現하겟나잇가?

『關稅와消費稅를 斷然撤廢하라!』

神戶朝鮮人消費組合 第一回定期總會盛況

【神戶】 재신동포의절대다수를망라한 서신소비조합(西神消組)은 영업장소를 시내림전구(市內林田區二葉町)에 다두고 창립이래 무산계급에잇는 동포들에게 만흔공헌이잇든바 지난 팔월이십칠일하오팔시에 지전공회당(池田公會堂)에서 제일회정긔총회를개최하엿는데 정각이되자 회원급방청인은 무려수천명으로 립회경관의삼엄한 경게리에 장두남(張斗南)군의개회사로개회하여 창립이후의 경과보고급 결산보고가잇슨후 토의사항 이십여건(二十餘件)의안을원만이맛치고 동십일시에 폐회하엿다하며 당일대회에서 보선된역원과 결의로간단한다음과갓다고한다

▲補選理事 金泰鎬 安利大 宋淳灼

一、勞働者農民子弟學費를政府에서負擔하라

一、失業者에게政府貯藏米를無價로配給하라

一、關稅及消費稅를撤廢하라

一、工場班及街頭班을確立하자

一、中間搾取絕對反對

一、消費組合에對한XX反對

一、神戶地方消組單一化實現

鎭南浦의 公設市場

不遠實現

【鎭南浦】 오만부민이사는진남포에 재래시장(在來市場)이잇슬뿐이고 공설시장(公設市場)이 이업슴은 유감중에 하나이라하여 악금 진남포경찰서자리를 공설시장으로하여 달나는요망이 일반부민들의 입으로한결갓치 부르짓게되엿든바 진남포상공회의소에서도 지난 이십사일역원회를 열고 대처의방책이 결정되여 삼십일에는 진남포중원(中原)부윤에게 속히 실현케하여주기를 바란다는 구체적서면을 발송하엿슴으로 과연십이분의 실현가능성이잇다고 한다

普校生溺死

【碧里】 김제군공덕면마현리(金堤郡孔德面馬峴里) 최태천(崔泰天)의 사남의길(義吉)(七)은 보통학교일학년생으로 이십이일 오후한시경에 학교실습 농장에서 실습을마치고 더위를이기지못하야 ... 시체는이십분만에 건지어 그부모에게 인도하엿다고 한다

祭祀집冷麵먹고 六人이一時中毒

◇……其中一人은死亡 五人은尙今呻吟

【內金剛】 내외금강을련락하는 신풍(新豐)역전인 온정동리(溫井洞)에서는 지난 이십칠일 냉면을 먹고 륙인이 중독된사실이잇섯다 죽은사람은 온정동리에사는 정명준(鄭明俊)으로 동리사람들과 가티그동리에서 한십리되는 국천동(國泉洞)이라는부락의 김성학(金聖學)이란사람의집에 제사를 보러갓섯다가 냉면과 미에상한문어를 먹고 고향에갓든 일행중륙인이 중독되여 도라오는중에서 심하위급한통지를 들은 동리사람들은 모다마주나가서 응급구호를하여 각각집으로업고 도라온후 명준은 원시술도못먹는 탓으로 조곰과식하얏든지 허리가 뒤로굽도록배가붓고 호흡을통치못하게되여 필경그이튼날오후팔시에 무참하게도사망하고말엇다한다 ... 지행방을 감추엇슴으로 ... 엄중수사중이라고한다

海南暴風雨 被害十一萬圓

家屋、橋梁、農作物等

【海南】 지난팔월십칠、이십、이십이일에 쏘다진폭풍우로인하야 해남각처에피해액이 십일만오천원에 달하는데 침수가옥이 이백여호이엿스며 그중전괴된 가옥이 삼십호요 반괴가 삼십호 기타 건물이 삼십여처의파괴가잇섯고 다리(橋)의유실이 사처이요 암교(暗橋)파손이 십륙처 제방파괴가 삼처나되여 일주간이나 각처교통은 두절되엿섯다 피해는 농작물에 더우심하여 벼는물론이러니와 면화의피해가 불소하며 고초와 채는흉작으로 보게되는바 피해액을대별하면 아래와 갓다한다

家屋橋梁其他 一四、七〇八圓

農作物 一〇〇、四九四圓

孝婦趙女史

【利川】 리천군리천면중리 김상운씨의 부인 조가란(趙干蘭)(四四)씨는 효부라고 일반이일컷는바 조씨는 김상운씨집에 맛며느리로출가하엿섯든바 김상운의삼촌이 간도방면에서 방랑생활을하다가 도라와서 의지할곳이업슴으로 조씨의집에 잇는중 병이나서 삼년간이나 병석에누어잇게되여 한번도안색을 변함이업시 간호하엿스며 씨의모친 림씨가 병석에누어잇는 이후부터 ... 부모가먹고자하는음식이잇스나 마암대로 간호치못함으로 남의집에가서 일을 하여주기도하고 바누질품을 팔기도하야 부모의먹고십허하는음식을 사서드리며 생선이 먹고십다하면 개천에나아가 새우라도 잡어다가 공양하는등 장구한세월을 로과타 봉양한것이라한다

總額三十一萬圓으로 主要道路舖裝

전차선로이외도로까지

平壤에서明年에實施

【平壤】 평양부토목과에서는 부내주요도로의포장공사(舖裝工事)를 명후년도부터 실시코저 목하각종의 안을연구하고잇는터인데 역전(驛前)에서 대동서부근(大同署附近)까지의 전차선로를제외한 『아스팔트』로 포장하려면 십오만사천원을 요하는터이나 이것보다도 찰아리 삼십삼만원을투입하야 전차선로이외에 주요도로를 포장할려면 것이 립안의골자로되어잇다 포장공사를행한다면 매년도로수리비(修理費) 일만륙천여원과 산수비(撒水費)일만여원이 절약된다는데 이것으로 긔채로공사를진행한데 사일부의상환비(償還費)는 자연히생겨진다는것이다

南朝鮮一帶를橫行튼 詐欺窃盜犯遂被逮

각지로다니며사긔절도로 경찰의머리골를알케하든

神出鬼沒의怪漢

【大田】 작년겨울부터 공주(公州)윤백춘의집을 위시하야 청주대전경성대구등지로도라다니며 려관에드러가 손님의양복과 구두등속외에도 다수의물품을절취하얏스며 경성 북미창정에서 리동수(李東洙)라는사람의 돈삼십칠원을 사긔하야 가지고 도주하는등의 다수한범죄가잇는자로 각처경찰서에서 그자를잡을랴고 무수히활동하얏스나 원체신출귀몰하는재조가잇서 반년이넘도록 경찰의 머리를알케하야나려오든바 맛츰내 지난이십칠일 대구서에서 체포하야 대전경찰서로 호송하야다가 엄중히취조한바 그자는 공주군계룡면중장리(公州郡鷄龍面中壯里)에본적을둔 우순봉(禹順鳳)(三五)이라는 자로 모든범죄의사실을 자백하엿다고한다

嫐母絞殺事件 被告事實否認

다음공판은십오일에

大邱覆審에서

【大邱】 시어머니의잘는틈에 목을졸라죽인 영양군일월면칠성리(英陽郡日月面七星里) 김성룡(金聖龍)에관한 살인사건의 공소공판은 삼십일 오전아홉시에 대구복심법원 법정에서 개정되엿다 피고는 시어머니가 죽은것은 자살이라고 끗까지변명하엿든데 사실심리가잇슨후 변호사는 실지검증 피해자의청결소행조사를 신청하엿스나 각하되고 상야(上野)재판장은 다음공판에 피고의남편차석(此石)을소환하야 시체발견당시의상황을뭇기로하엿다는바 다음공판은 구월십오일이라한다

銀貨의盜失이

窃盜當한것發見하자 卒倒한채드듸어絕命

殺人하다

【平壤】 푼푼히 모아잇든 은화(銀貨)륙십여원을 도란당한것을 발견하고 넘우도 놀래고 어안이막히어 긔절한채로 저승의길을 밟고만 사건이발생하엿다 평양부내수정(壽町)이십이번지 김돈영(金敦永)의친모 리씨(李氏)(四六)의집에는 이십팔일 밤중에 괴한이침입하여 푼푼히모아 륙십여원을만들어 두지속에 너허둔것을 몽땅집어가고말엇다 외출중에서 돌아온 리씨는 두지문이열니고 은화가업서진것을 발견하자 놀람과긔막히는 생각이 왈칵복밧치게되여 『아이고머리야!』소래를질르는채 졸도하여 그대로절명하고말엇다고한다

大田新灘津에 蔬菜組合組織

【大田】 대전군신탄진(新灘津)은 우량한수박과목、배채의 소산지로 전선에 이름이 난곳인데 각종유명한소채가 다량으로 산출되여 다른지방으로 이출이 만히되는관계에잇서 소채공동조합의 조직이필요함을늣기고 관계자로부터 오는구월오일 오전구시에 신탄공립보통학교에서 신탄진소채공동출하조합(新灘津蔬菜共同出荷組合)조직에 관한 창립총회를열기로되엿다고한다

傳染病患者 行方潛跡

當局極力搜查中

【南浦】 진남포룡정리(鎭南浦龍井里)일백팔십삼번지 김종조(金宗朝)의 이녀김순복(金順福) ... 진남포부립병원에서 ...

長白縣朝鮮人 救濟金募集

南朝鮮水害를듯고

【惠山】 함남혜산대안(咸南惠山對岸)장백조선인회(朝鮮人會)에서는 남조선 수해리재자(南朝鮮水害罹災者)의 정보를 듯고 타국에와잇는 가난한 살림이라도 거저잇지는못하겟다는 붉은마음으로 아래와갓치 구조금을모집하엿다고한다

▲劉東熙十圓▲姜周成五圓▲金錫鎬四圓▲金伯律▲金鳳元▲李容弼▲金乙憲▲宋南吉以上各三圓式▲金喆▲潘春甫▲姜一起以上各二圓式▲李承祿▲申允學▲崔台元▲姜濟東▲許白▲金周行▲金鳳國▲朴廣重以上各一圓式▲金仁成▲姜元植▲魏元鎬▲李旭▲趙勳▲許時和▲金源和▲韓秉熙以上各五十錢▲崔藏天二十錢

男便의病을悲觀 投身自殺

【進永】 지난이십오일오후열두시경에 진영면진영리 장구산(進永面進永里長久山) 선종수(宣宗守)(三六)의처 김성녀(金姓女)(二三)란녀자는 ... 진영김해농장(金海農場)부근에서 투신자살하엿다는데 이십칠일 아츰에 시체를 발견하엿다한다 그자살한내용은 탐문한바에 의하면 ... 개가(改嫁)하야 ... 남편이 신병으로 ... 자살한것이라고한다

米穀問題의核心

—産米制限說을듯고—

梁心山

一、米穀問題에對한우리의關心

米穀은 古代로부터 우리朝鮮人의重要食品이되여잇다 그리하야 米穀經濟가 主이던 封建 經濟下에서는勿論 그것이 完全히 從이되고만 今日 資本家的社會制下에잇서서도 그重要性은 조곰도 輕減되지안엇다 實로 米穀은 現在우리의生活에 업지못할 따라서 어제버리자야 이저지지안는食品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비로소우리는「돈」만잇스면 못하는일이업고 또아니되는일이업게되여잇다 世人의關心은 오로지 이「돈」에集中되여잇지마는 過去에아직우리가 自然經濟生活에 支配되여잇슬때에는「돈」보다도「살」이엇다 따라서 우리祖先의關心도 오로지이「살」을生産하고 蓄積함에잇는것이다

그런데 우리朝鮮人은 이두가지生活을 지금 아울너 살고잇다「돈」世上에 살면서도同時에「살」世上을 겸처 살고잇다「살」世上이란다만主要食品이「살」임을 表現하는 말이아니다 그는自然經濟社會를意味한다 그러나 이미말한바와가티 現代는 「돈」世上인지라 그自然 經濟生活이獨自的으로 「竝行」과「同時」的存在를固執하지못하는것이 歷史的社會的原則이다 그는 「돈」에從屬되고 支配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朝鮮人은 「아울너」또는「兼치」的存在를 容認할만한 아니 도로혀 그것이 主가되는程度의 自然的經濟生活을 生活하고잇다

그는 米作이 따라서 우리朝鮮農業의主軸이요 따라서 米穀이半島農家經濟의 決定的要素라는것으로 넉넉히首肯되는일이다 事實朝鮮은 日本의植民地政策으로因하야 都市日本에對한農村朝鮮의任務를 遂行당하고잇는關係上 그의資本主義가企圖하고 要請하는것은 一切로이것을「遂率」치안을수업다 그리하야 朝鮮은從來의 封建的農業生産關係를 그대로繼承하얏다 이러한機構下에 오늘날에도 「全朝鮮民衆經濟的 生活動員의四分之一」(李勳求)은 米生産에消耗되고잇다 이點만으로도 這間의形便을 定認하기에어렵지안으나우리가萬一朝鮮人口의八割 이八割의八割이貧農的地位에 處하여잇는事實을 아울너본다면 더욱 明白히 繼承된 自然經濟的生活의程度가 얼마나큰가를斷的할수잇다 이에米穀問題에對한우리의關心은 자못크다

成者잇서서 朝鮮人의米消費量이逐年減少하여 明治四十三年에 每人當七斗二升이던것이 生活이向上되엿서야할今日(昭和五年)에잇서서 四斗六升이되고그리하야 今日朝鮮細民은 粹 粟 春窮에난草根木皮 로가든것을 常食한다는事實을듣어 그들의米穀에對한關心이적다는—아니차라리 업스리라는抗辯을提示할런지 모르겟다 그러나아니 그러키에더욱더욱米穀에對한우리의關心이 크지안을수업다 問題는다만消費의多過 有無에만잇지안타 이消費에先行한生流에잇다 그리하야米穀의生産關係에잇다 米穀의生産關係는 發展하야現代社會의生産關係에制限되여잇다이것이今日의實情이다 倉庫와露積에서 살이썩고 쥐밥이되고멀니海外에 헐값을하는때는그래도 片土나마所有하고잇는者이면넉넉지못한量이나마「돈」과밧구고 所有하지못한農民이라도勞働할機會이나마가젓지마는産米를制限케된今日에잇서는生産者이기때문에 享受하든從來의 微弱한「恩典」마저完全히

剝奪 당하지안을수업다어서그들 細民의米穀에對한關心이적다하리요

農村農務課長은「朝鮮의淸農層으로본다면 價格이여러커도豐年이드라 多收穫되는것이얼마큼有利할것은明白하다」(朝鮮日報第四三七九號)라고말하엿다 有利할런지모른다 그러나이有利가果然 生産制限의損失을 相償할程度의것일가? 細農은 이「有利」性의內容을잘안다

그리하야 生産制限說이 擡頭되엿스는 細農層의關心은從來만 米穀問題의今日發展段階에에比하야 한層더크다「살」밥을먹든 못먹든消費者이던 生産者이던 米價가騰貴하던 低下하던 그리고또豐作이던凶作이던 米穀問題에對한 우리의關心은크다 그는米穀이主要食糧品이라는意味에잇서서만이아니다 —그보다도차라리더만히그가一段의發展을보게된 그問題가細農의 生存權을直接脅威하고잇다는點에잇서서이다 米穀問題를 알지못하고今日의社會生活을論할수는업다이것을合理的으로

解決 하지못하고社會生活의合理的解決을期待할수는업다

米、新産金輸出의 日本에던진波瀾

金禁輸緩和策에 日本輿論이區區

政府政策不遠變更?

二十九日發表의 아메리카 大統領루氏의 所謂新産金自由輸出令은 國際市場地金價에 多大한 影響 주게된 他面에日本産金者들의 政府에對한 不平은一層더 甚하게되엿다 即現在의日銀地金買入價八圓八十八錢은 지난四月의 日米爲替二十二弗五十八仙을 基準으로한것이니만치 昨日米爲替二十七弗內外에잇슬뿐안이라 國際市場과는 顯著한差가잇슴으로 米國서 金輸出禁止를緩和식히기前에도 不平이만턴 一般産金業者은 이番機會에斷然政府의 再考를要求하게되엿스나 政府形便으로은 只今곳此를改訂할準備는업고 이要求가實現되기까지는 아즉도 相當한時日이걸닐것으로 觀測되나 結局不遠한將來에 變更이될것만은 旣定的事實이다

루大統領의 金輸出自由令에

日本當業者運動開始

【電通東京三十一日發】 現在의産金買上低格八圓八十八錢은 對米爲替二十二弗五十八仙을基準으로 去四月二十四日改訂된 그대로据置되여잇는데 米國이 今回産金輸出을自由로하게되면 米의金塊市場은國際水準에 昂騰하고 日本買上價格을現著히低位에放置케되는터임으로産金業者는近近大藏省에그改訂運動을할模樣이나 大藏當局에서는아즉改訂을考慮치안음으로改訂되기까지는相當한時月을要할模樣이다

朝銀地金買上

近近方法變更

朝鮮銀行地金買上値에對하야 河口支配人은 日本에서實情을調査한結果 近近日本에서도水議會의希望대로從來의米弗換算을英磅換算으로換算標準을變更하기로內定되여이로地金時勢는 英磅換算時勢十一圓가량外지昂騰하리라고보고 朝鮮銀行도日本의態度가 決定됨을따라英磅建으로變更하야 地金買上値를 上引하기로內定하얏다

東京爲替市況

【聯合東京電話】 一日朝東京爲替市況

對米	賣	二十六弗四分三
	買	二十七弗丁
對英	賣	一志二片十六分三
	買	一志二片十六分五

米日爲替保合

【聯合東京三十一日發】 本日米日爲替는二十六弗八十七仙으로不變이며氣勢는依然保合이다

印棉不買宣言코 例年보다더購入

印度서對日關係討議

【電通뉴델리三十一日發】 三十一日의 印度立法議會에서日本의印棉不買問題에對하야 諸議員으로부터 政府의하는것은 紡績業者만의利益을重히하고 棉花栽培業者들을犧牲코저한다고逃하고 注意를喚起하얏슴에 對하야商相『뽀아』氏는 日本의印棉不買聲明에도不拘하고八月末日本에向하야輸出된印棉은昨年八月의그것보다도多量이엇다고逃하얏슴이特히注目을惹起하얏다

一信三十錢으로 滿洲電信取扱

朝鮮은國內料金同樣

【電通新京三十一日發】 三十一日創立總會를終하고九月一日부터業務를開始한滿洲電信電話株式會社의電信取扱料金制度는 從來日本側의採用하여오던字數制를廢하고 滿洲電政局의舊制度인 語數制를踏襲하야料金의內容에도大改正을加하야 即日實施하기로內定되엿다 改正의內容은左와如하다

一、關東州 滿鐵附屬地 滿洲國及朝鮮을格一料金으로하고一語(七字)十錢 宛名은一語로見做하야 都合三語로外一音信으로된다 달아서七字增하는대로十錢增이된다

一、關東州 滿鐵附屬地 滿洲國으로부터日本宛의電報料金은一語(七字)十三錢 宛名을一語로見做하야 都合三語로써一音信으로한다 從하야七字增하는대로十三錢增이다

一、至急報는二倍 또新聞電報料에도多少의改[illegible]잇다

米倉在庫米激減

米倉會社의三十日現在在庫米高는三十五萬三千五百十四石으로前月에比하야二十三萬七千九百十五石의激減이다

釜山	七九、八一〇
木浦	三八、二七九
群山	一二三、四八八
仁川	三九、九九〇
鎭南浦	七一、九四七

門野代表倫敦行

日本代表準備整頓

【聯合倫敦三十一日發】 近間倫敦에開催될日印民間協議會에 日本綿業代表로서 出席할岡田源太郞氏外五氏는六日『마제스틱』號로『사잔푸톤』에 到着할터인 一方門野重九郞氏는九月三日歐州大陸의旅行에서『론돈』에還歸할 豫定으로大使館商務參事官을비롯하야 經濟方面關係者等과 日本代表는 交涉開始外지의 期間을 가장有效히보내고저 諸般準備를 進하는中인데 代表一行은『론돈』到着後門野重九郞顧問 松山商務官으로부터 事情을聽取後開會前英國側의意中을알고 紡績聯合會의當業者等과 協議하는等完全을期하리라한다

株式市場鈍調

【電通뉴욕三十一日發】 三十一日의株式市場은 鈍調區區商內閑散『스칠』六分三低의五十三弗八分五『아나콘다』四分一低의十七弗八分五

木炭增産計劃 第二回懇談會

統一及運賃討議

年産二千萬貫의 木炭을四千萬貫에增大하야 日本滿洲에新市場을 求하려하는總督府의木炭增産案은 인케豫算十萬圓의容認을得하얏슴으로 明年度부터實現하게되엿다 그內容은大體로左와如하다

一、豫算五萬一千圓으로各道에檢査員六十八名을 配置하야移輸出檢査를施行할

一、右檢査는朝鮮內市場에出廻하는者에適用할것이나 檢査는主要集散地에서施行할

一、一方經費四萬九千圓으로窯의改良其他必要한施設을行하야 生産品에改良、增産을期圖함

그리하야 從來日本市場에相當히 出廻한朝鮮木炭이 完全히驅逐된 原因이規格의 不統一과運賃의高率에잇슴은 事實에鑑하야 總督府에서는 于先規格을統一하기로決하엿는데 九月十三日頃 關係當局及當業者를 招集하야第二懇談會를 開催하고그方面에就하야 意見交換을行할豫定이며 運賃低下에對하야는 鐵道局外 目下考慮中이라는대 總督府에서는 別노히 經費五萬圓을投하야 널이林業開發을目的으로 林道開鑿을行하기로되얏슴으로 原産地로부터市場外지의 運搬費도相當히 低減될것이라고한다

米棉、取引閑散

【電通뉴욕三十一日發】 三十一日의 米棉市場은二日의土曜休三日의 日曜、四日의勞働祭와三日間의 休日로商內閑散結局六乃至 十一포인드低 (日貨換算四十錢) 에大引되엿다

四分利公債發行 省令으로公布

四日公布即日로實施

【電通東京三十一日發】 大藏省은 四分利公債發行과共히九月四日左記의省令을公布하야即日로實施할터이라한다

第一條 四分利國庫債券의額面金額은五十圓百圓五百圓千圓一萬圓 十萬圓의六種으로한다

第二條 四分利國庫債券의利子支拂期은 每年三月一日及九月一日又는 六月一日及十二月一日의二回로하고各各其日以前六個月間에屬하는者를支拂함但利子支拂開始前元金償還의境遇에의 當期分利子는元金과同時에 此를支拂함

◇今日의市勢◇

○○○ (一日) ○○○

株式	(朝取後場寄價)	朝新 三二·四〇 東新 二〇〇·一〇
期米	(先限後場寄價)	仁川 二三·一三 大阪 二三·一九
正租	(仁川一斤價)	改良 五錢四 在來 五錢六
正米	(仁川㊂三等)	一九·五三
綿糸	(大阪先限後寄)	—
生糸	(橫濱先限後寄)	八五五〇〇
人絹	(大阪先限後寄)	一一一八〇
고무	(FAQ一封度價)	現物 三五錢〇〇 先物 三五錢二五
爲替	(對米)	二六弗八分五
地金	(朝銀買價)	一匁 八·七五

商況 (一日)

株式

日産爆發高로 東新二百圓突破

가을市勢의前奏?

가을市勢에對한期待는 一般으로가지엇섯스나 아즉時期尙早의感으로 市勢를업수히녀이것이事實이엇다 그러나盛夏의고비를平穩히지난後는 買方과賣方의地位가逆轉되어 市勢는上放되엇섯고 特히低金利와來年度膨大豫算關係로『이푸레』激化를바라는 雜株의物色買가旺盛한好感으로 無力視하던東新도昨日東京大阪短期가 二百圓으로肉迫하야 百九十九圓臺로奔進된뒤를이어 今朝新市에는日産의驚異的爆發高가 直接動機가되엇고 新規四分利債發行等一段低金利豫想은上市勢에 拍車를加하야 買方의宿願인二百圓關門을우수웁게突破코야말엇다當地도東京大阪爆騰으로 軟派의煎物과新規買氣를刺戟하야活況을演하얏스나即△東新은二百一圓六十錢에二圓十錢高寄後二百二圓丁에外지올느고 百九十九圓九十錢에利喰押이엇다가二百圓三十錢大引△大新百十四圓九十錢에一圓四十錢高寄後五圓丁이잇고 四圓五十錢大引△朝新도三十二圓十錢에二十錢高寄後二圓丁으로二圓六十錢에올낫다가二圓三十錢大引△日産百一圓丁에飛躍이엇다

秋期活躍期待

【聯合東京電話】 前日日産의爆發高를動機로好調에轉한株式市場은新規四分利債의發行等一段의低金利豫想으로 一日朝는더욱買氣를强하야諸株가繼續强調를持續하고 前日三百圓大關門에肉迫한短期新東도드되어二百圓台를 突破하야二百一圓八十錢으로二圓十錢高를始하야鐘紡二百四十四圓三十錢으로 五圓十錢高日産九十九圓八十錢으로三圓十錢高其他도大、二圓十錢高

朝新도追伴高

日産二圓五十錢高續紡新株 日淸紡 三菱新株一圓七十錢高日石一圓高로一齊上放되어漸騰步調를取하고 秋市勢의活躍이期待된다

賣買가至極히閑散하던 朝新株도今朝東新二百圓突破의 爆騰에追作하야 三十二圓六十錢의高價外지잇섯다 目前에잇서朝新의 獨自的行動은 期할수업고東新騰落에 追作할뿐이겟는데東新市勢에對하야 一段人氣가비록二百圓은 突破하얏지만 이로서가을市勢의 第一幕으로서도 熱이적은것이事實이나東新鐵이擴大될것만은 事實이니 東新이 설령繼騰되지안는다드래도 朝新에對하야 漸次業績良化期待가잇는만큼 押目買가有利할것갓다

株界六感

× 東新은드되어 二百圓大關門突破!

× 올느면얼마나올느겟느냐고은근히 업수히역이던軟派에게는頂上加一針 冷水三斗格

× 二百圓을突破하고나니가 關門鍛鍊이겟지 하고또自慰

× 一般이熱치안코 心中으로弱氣를가지는만큼 市勢의壽命은길고무섭다

× 더구나 이것저것强材料外지續出하는터이니 여간해서는逆轉難期 雜株物色買氣旺盛에不拘하고東新을賣叩하다가失敗하고도리어上向된後 日産爆發을動機로最後에飛火된東新高를決코輕輕히볼수업다

× 너무目前이야『에拘束되지말고先高人氣에一應加擔하야强氣를가짐이 市勢에順應하는것일듯

市勢基調堅固

漸騰의一途?

政友會轉向으로 所謂擧國一致를再認識케하는同時 政局不安을解消되엇고 四分債發行으로低金利는 拍車를加케되고 米國의金輸出禁止令의 變更은當然히 平價切下를意味한다하면 그實現外지 買方이目標를둘수잇스며『인푸레』는各國이好否間免키어려운 世界共通의現象이라겟다 區區한推測과强弱觀을가지고 市勢를云爲함에는지나갓고 一路上向의『코쓰』를밟은것으로보이는데 설령다시東新二百圓 關門鍛鍊이이다할지라도 이로서市勢가逆轉된다 이라할수업게되엿다

輕視는大禁物

當限穩健納會好感日産高大出來와軟派踏退로新甫外지올으겟지만決코一氣는올으지못하겟니가을市勢도倒早이니다시反落에入하여야만眞正한上市勢에入하라는것이大體日産前觀이듯하나一般이그러케생각하는反對로市勢그대로寸退尺進으로漸騰할것갓다고未有力者는보는모양이다

期米

颱風에 萬疊

今朝阪地新市十一限은 中限에比하야 正히同鞘로二十三圓三十錢에新甫되고 當地는中限二十三圓二十錢新甫二十三圓二十九

四圍는軟材料

政策은何如

[illegible] 九丁上放되여 [illegible]三等三十九錢으로十六錢外지 反落할것같아 三十錢으로〇九錢外지下押하엿다가 結局二十二錢에止場할뿐을伴하야 三十三錢에保合止하엿다

小笠原島의颱風은 米界의波瀾을惹起하엿슬뿐으로 結局今朝에入하야颱風의進路가 北西로向하얏슴에 日本은 無事할모양으로市勢도또한反落하바되엿다從하야豐作을可期하는同時에端境期의殘想繼越이一千萬石이나될것가튼으로米의實際事情으로보아서는하나도 살만한材料가업다그러나政府로서의살에對한政策이注目處인데 兩國의事務米價는 二十三圓三十錢으로定할政府의意思라는說이 濃厚함으로 容易히低落을 不許할것도갓다 今朝發會된新甫十一限은 正히 二十三圓三十錢으로 豫想하든 事務米價와의同價인바 果然此以下 低落을示하는때에 政府로서 어떠한對策을 具體的으로 實現할것인지注目을 加할바인데 數日前에 深川、神田、大阪等地의米價가 昨年度의基準米價를下廻하엿슴에도 米買上을하지안코 放任한그點으로보아서 새로定할基準米價에對하야도 또한農家의不安이업지안타고云云

米豆餘話

颱風이한번일어나자各地米界는波瀾萬重 此가天災的의最後一幕?

◇ 二百十日은無事經過할모양이나二百二十日白露等厄日이또한問題

◇ 問題의 日本米의 基準米價는二十三圓二三十錢으로定한다는說이濃厚하다 此가事實이면此邊價는警戒할뿐

◇ 그러치만 政府로米買上方針을施立하기外에는基準米價란有名無實

◇ 數日前에深川 神田等地의米價가 基準米價를下廻하엿슴에도 政府는放任하엿슬뿐이엇다

◇ 政府로서基準米價를下廻할때에買上을한다假定하면그不數가얼마일지도한注目處

◇ 多量의在米를處分키難한今日에政府의買上도難問

各地新甫豫想

大阪	一、二三十錢上鞘
東京	一、二三十錢上鞘
神戶	一、二三十錢上鞘
下關	二十錢上鞘
名古屋	一、二十錢上鞘
朝取	一、二十錢上鞘

沖繩의颱風은 南鮮을掩襲乎

二百十日을압두고小笠原島에서發生한二百二十五粍의颱風警報가들어오자期界는俄然硬化하야바로電光石火의氣勢를올리엇스나正히二百十日인今朝에入하야는問題의颱風이沖繩島의南西約八十粁海上으로進行함에딸아沖繩石垣은暴風이일어나고九州도疾風程度로그餘波를傳하나 그外는 全滿的으로平穩하다그 그런데그颱風은一時間約十八粁의速力으로北西로進行함으로明日南鮮은天氣가險惡할모양이나 北部는陰鬱할이라는豫報임으로 二百十日은 그다지큰支障이업시無事經過할것가트며 딸아서 市勢는 颱風으로昂騰하엿든그 程度만큼의 反落을또한豫期할 수잇다 何如間豐作은無疑의事實임으로 政府로서어떠한特殊政策을實現하기外에는 當分暴騰市勢는업슬모양이다

海外經濟 (一日)

倫敦銀塊	一八片[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英米爲替	[illegible]
米日爲替	[illegible]
米棉	[illegible]低
印棉	[illegible]低
스[illegible]	[illegible]
아나콘다	一七弗八分五

朝取短期 (一日)

	寄付	大引	高價	低價
朝取	—	—	—	—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	—	—	—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一〇一〇〇	一〇一〇〇	一〇一〇〇	一〇一〇〇
日新	—	—	—	—
安取	—	—	—	—
拓新	—	—	—	—

○……後場寄付……○

朝取	[illegible]
朝新	[illegible]
鍾新	—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日新	—
安取	—
拓新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株名	算定	日步	代引、取組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亞新	—	—	—
日産	[illegible]	逆[illegible]	不[illegible]
日新	[illegible]	—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鐵新	—	—	—
東新	[illegible]	逆[illegible]	不[illegible]

東京現株

	前		後
東株	[illegible]	同新	[illegible]
朝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殖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滿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	[illegible]	同新	[illegible]
富士紡	[illegible]	日石	[illegible]

東京短期

	寄付	大引	高價	低價
東新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後	—	—	—	—

大阪短期比較表

	前日大引	前寄	比較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大阪短期

前場	寄付	大引	高價	低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寄付……◇

大新	[illegible]	鍾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東新	[illegible]

大阪長期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期米 (一日)

各地期米比較表

	前日大引	前寄	比較
大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下
東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下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下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下
名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下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下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上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上
群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上
木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上
南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下

朝取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	一九·[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	—	[illegible]	[illegible]
五	—	[illegible]	[illegible]
六	—	[illegible]	[illegible]
七	—	[illegible]	[illegible]
八	—	[illegible]	[illegible]
九	—	[illegible]	[illegible]
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寄	一九·[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各地期米

	大邱	群山	木浦
前場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	二三·[illegible]	二三·[illegible]	二三·[illegible]
二～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	二三·[illegible]	二三·[illegible]	二三·[illegible]
二～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寄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前寄	前引	後寄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名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

㊂三等米	一石	一九·[illegible]
同四等米	一石	一九·[illegible]
無檢查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精白米	六十瓩	[illegible]
在來正租	一斤	[illegible]
改良正租	一斤	[illegible]

商品 (一日)

仁川大豆

[illegible]大豆	一石	[illegible]
長湍大豆	一石	[illegible]
[illegible]大豆	一石	[illegible]
海州大豆	一石	[illegible]
天安大豆	一石	[illegible]

大阪綿糸

	前寄	前引	後寄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
二月	[illegible]	[illegible]	—
三月	[illegible]	[illegible]	—

大阪棉花

	前寄	前引	後寄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糸

	前寄	前引	後寄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前寄	前引	後寄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現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前寄	前引	後寄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海外砂糖

玖瑪實糖	一仙[illegible]
爪哇九月限	[illegible]
倫敦九月限	五志一片三分一

金融 (一日)

朝鮮銀行券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朝銀金買入價

一匁	八圓七十五錢

對外爲替

對英	一志二片十六分三
對米	二六弗八分五
上海	[illegible]

(朝鮮銀行建値)

人形의집을나와서

【一名 노라의後日譚】 [89]

蔡萬植 作 / 吉鎭燮 畵

재앙은쌈으로 (三)

주인마나님은 야지업시 손녀를나물햇다

『이년 아모리 돈 하기로니 그래 두달동안에 겨우 언문두줄을 배우고말어?……그럴려면 왜 공부를 시키라고 말을 해?……남이 시킨것도 아니고 제가 한다고—한다고 조나서 시작한것이니 좀 정신을 차려야지……나히 열두살이나 먹은년이!』

통히 그러한 나물향을 듯지아니하든 효정이라 처음은 실상그것이 나물향인지도 잘 몰낫다가 필경 울음이 터젓다 노ㅣ라가 달내라고하나 아모써도 할머니가 굽히기를 기다리고 근치지아니한다

생각하면 무리가 아닌말이다 두달동안에 돈 팔십원을 드리어 어문 두줄—스무자를 배웟스니 그거나마 똑똑히 익히지도 못하엿지만 사흘에 한자씩이요 한자에 서원씩이 퍽헌셈이다

노ㅣ라는 이러케 뜨지어보고 무안한 생각이 드는중에도 그러나 돈을 팔십원이나 드려서 어문 두줄을 겨우배웟느냐는 주인마나님의 말이 눈치밥을 먹는것가티 목에 걸니엇다

노ㅣ라는 비로소 남에게돈을밧고 부리우는 사람의처지가 어려운것을 깨달엇다

그는 노ㅣ라는 도라오는길에 헤경이집에 들녀 그런이야기를하고 어데 단데 직업을 구할 상의를하엿다

그러나 지금당장에 그만두면 위선 막막할뿐만 아니라 또 어느써나 직업이 구해질지 몰으는것이니 그대로 게속하여 다니기로하엿다

칠월중순

비로소 참더위에 들어서는 쎄다 수은주는 나날이 놉하가고 서울장안의 모든 사람은 허헉하고 허덕어린다

사오일이나 지독한 더위가 계속이되든 곳친데 오정이지내자 맑든 한울이 갑작이흐리기 시작하더니 소낙비가퍼붓든듯이 쏘다진다

노ㅣ라는 효정이의 학과를 맛치고 막 도라오랴고 하다가 비에맥혀 주뭇안젓다

창사속까지 시언한바람이 활활불면서 댓술기가든 하얀빗발이 퍼붓는것이 시언한것모

시언한것이어니와 보기에도통쾌하엿다

노ㅣ라는 시달니든 더위에 복수라도 하는듯한 느긋한마음으로안저 비내리는것을 바라보느라니 몸이노곤해여지며 또속또속잠이 오기시작하엿다

사실그는 요지음 잠이 부족하얏다

좀 드릿커서는 옥순이의죽은뒤 그리고나서 마작 그리고나서는 무서운밤과 빈대에 보채어 밤이면 변변히잠을 자지못하엿다

더구나 빈대는 그에게 대적이다 원체 물것을 몹시타서 벼룩한마리 빈대한마리만 생기어도 잠을 자지못한다 그런데 집이 낡은집이라 빈대가 유난스럽게 만타 마나님이 엽헤서 정원이와 자벳심조케 식식하고 잠을 자는것을보면 부럽기도하고 쏴증도낫섯다

비는 소낙비로 시작하엿스나 곳잘 멈치려고 아니한다

마침 잠도오고 비도오고 해서 노ㅣ라는 방문을 열어노흔채 팔을 엽으려비고 드러누엇다

안심하고 한숨 잘수가잇다

방은 깨하얏케 도배를 해노앗는데 빈대한마리 눌너죽인 흔적도업다

방바닥은 비어두는 방이지만 누지면 못쓴다고 가끔 불을 넣키 때문에 차가는차면서도 은은하지는안다

차라리 옥순이도 업고하니 이집에와서 아주 잇슬가하는 생각을하면서 노ㅣ라는 슬멋이 눈을 감엇다

효정이의 순서업시 집는을강의 소리가 멀니멀니 가는듯하다가 깜박 잠이들엇다낫잠은 조곰자도 오래잔것갓다

노ㅣ라는 얼마동안 자다가 숨이 갑갑하여 어렴풋이 잠에 쌔엇다

그러나 잠이 아직 완전히 쌔이지는 아니하고 그대로 좀더 잣스면 조켓는데 더웁고 답답하여 견델수가업다

그는 집에서 흔히 정원이가 잡결에 다리를 들어언든것만 녀여 손으로 몸에 놀니는것을 치우려고하는데 곳을 썰어지지를 아니하여 눈을 쎠보앗다

『으악!』

넘우나 놀낸 노ㅣ라는 겨우 기ㅣ[illegible] 질으고 숨이